

속향전

속향전

고전소설

이 시리즈에 관하여 6

들어가기 전에 8

제1장 숙향전 권지상 14

- 1 김전이 거북이를 살려주고 보답을 받다 15
- 2 숙향의 출생 17
- 3 다섯살에 병란을 만나 가족과 헤어지다 18
- 4 후토부인을 만나 십오년의 운명에 대해서 듣다 21
- 5 장승상의 의녀가 되다 23
- 6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숙향 24
- 7 용녀의 구함을 받고 선녀에게서 앞일을 듣다 29
- 8 사향은 하늘에 죄연어 죽고 승상은 숙향을 그리워하다 33
- 9 화덕진군에게 구함을 받고 마고할미에게 의탁하다 36
- 10 천상의 꿈을 수놓다 40
- 11 이선의 이야기 42

제2장 숙향전 권지중 48

- 12 이선이 마고선녀를 찾는다 49
- 13 이선이 숙향을 찾아나서다 53
- 14 이선이 숙향을 찾아 혼인하다 57
- 15 혼인으로 인하여 숙향이 고초를 당하다 61
- 16 마고선녀와 이별하다 67
- 17 숙향이 이상서의 집에 들다 70
- 18 숙향이 재주로 시부모를 기쁘게 하다 73
- 19 이선이 등과하고 돌아와 숙향을 만나다 76
- 20 형주로 가는 길 80

제3장 숙향전 권지하 86

- 21 숙향이 장승상 양위와 재회하다 87
- 22 숙향이 부모를 다시 만난다 93

- 23 양왕지녀 매향의 이야기 102
- 24 이선의 황태후의 약을 얻으러 출행한다 104
- 25 용왕의 아들에게 길인도를 받아 여러 나라를 거치다 106
- 26 신선들의 인도를 받아 봉래산에 도착하여 약을 구하다 110
- 27 천태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다 114
- 28 황태후를 살리고 초왕에 봉하여지다 117
- 29 이선이 양왕의 딸로 둘째부인을 삼고 속향이 반야산 도적에게 은혜갚는 이야기 119
- 30 신선으로 돌아가다 121

어린 시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 할 정도는 삼중당 문고였다고 할 수 있다. 장정일이 이미 설파한 대로. 150원하던 삼중당 문고는 책 이외에 마땅한 오락이 없던 시절에 거의 유일했던 장난감은 아니었을까? 장정일의 시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경제개발 몇개년 식으로 읽 어간 삼중당문고” 라는 것인데, 실제로 나는 경제개발 몇개년 은 모르겠으되 번호순으로 빠뜨리고 읽지 않은 것을 체크해본 경험은 있다. 그리고 삼중당 문고는 꼭 한 권씩만 샀는데, 그 이유란, 민망하지만 책을 사러 갈 때마다 책방 누나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게 문고본 책은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 시리즈의 북 디자인은 책세상의 ‘책세상문고·우리시대’ 의 것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였다. 한글 문서의 TeX 조판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예제 성격이 강한 까닭에 이렇게 디자인을 베껴보는 것이 좋은 샘플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권의 책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코딩해야 할 부분을 적어도 최소한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제가 되었다 싶다.

어차피 샘플 문서인 관계로 오로지 이 책 단 한 권만 ‘출판(?)’ 할 것이며 그나마도 권지하 부분은 빠뜨리고 싶지 않은 불완전한 모양이기는 하나 번역이라 할 수도 없는 현대어 전사

과정에서 상당한 재미를 느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 까닭에 현대어로 옮기는 것은 전부 내가 하였으나, 나 자신이 고전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오역과 오독이 솔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소스에 원문을 그대로 살려 두었으니 미심쩍은 분들에게서는 번역문을 참고하지 마시고 소스의 원문을 보실 것이다.

옮겨적음에 있어서 나는 고전의 문장의 맛을 그대로 남겨 두고 싶었다. 특히 우리 고전의 유장한 ‘이야기체’, 즉 셴텐스 단위가 아니라 이야기로 흐르는 글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그대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들도 많다. 특히 속향전은 다른 고전에 비하여 대화체가 매우 화려한데,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서의 효율을 위하여 대화 단위로 행을 바꾸도록 애썼다. 어휘에 있어서도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는 것이나 대략 뜻을 알 수 있는 것일 때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두었으며, 현대어에서 의미가 변한 것이 있더라도 역시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면 ‘발행’을 ‘출발’로 고치지 않았으며 ‘인간’은 현대어에서 그 뜻이 변하였으나 ‘세상’을 의미하는 원래의 ‘인간’을 그대로 썼다.

되도록 주석없이 고전을 원문에 가깝게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잘 아는 분께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 텍스트는 위키백과사전의 **숙향전 항목**을 가져다 쓴 것이다.>

숙향전은 17세기 말엽에 창작된 한국 고전소설이다. 남주인공 '이선' 과 여주인공 '김숙향' 을 통해, 가족 이산,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존립 기반으로서의 상호 존중, 인물의 삶에 관여하는 운명론과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이계(異界) 체험을 통한 자기정체성의 확인 등 삶의 도정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여러 문제의식을, 때로는 흥미 있게 때로는 아프고 진지하게 묘파해낸 작품이다.

《숙향전》은 여러모로 명성이 자자했다. 현전하는 《숙향전》이본(異本)은 90종에 육박한다. 이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애독되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이본 중에는 국문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된 것도 수십 종에 달하는데, 이는 한문에 능숙했던 양반계층에서도 《숙향전》이 소통되었음을 뜻한다. 《숙향전》은 국문을 아는 사람, 한문을 아는 사람들을 두루 망라해서 자신의 독자층으로 끌어 들였던 것이다.

요즘도 탐골공원 같은 데를 가면 이야기꾼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이야기꾼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들 중 대표적인 것이 전기수(傳奇叟: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늙은이)인데, 이 사람들은 종로와 같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네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돈을 받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록을 보면, 어떤 전기수는 한 달을 기약하고 종로에서 시작하여 청계천변을 오르내리면서 이야기를 구연했다고 한다. 전기수는 구연하다가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면 문득 구연을 중단했으며, 그때 주위의 청중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해 전기수에게 돈을 던져야 했다. 이처럼 이야기 구연을 생업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는 구연도 잘 해야 하고, 또 구연의 레파토리도 다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속향전》은 《소대성전》, 《심청전》 등과 함께 전기수의 주요 구연 품목이었다. 이는 아예 글자를 모르거나 아니면 글자를 안다 하더라도 여력이나 여가가 없어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속향전》은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록에 의하면, 《속향전》은 일본인 통역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습 텍스트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속향전》 이본 중에는 일본의 도서관에 소장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순한글의 원문 옆에 일본어가 빼곡하게 병기(併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속향전》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한국어를 익혔던 흔적들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 통역관들이 《속향전》을 한국어 학습 텍스트로 선택한 것은 여러 요인(분량의 장편, 내용의 흥미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속향전》이 다른 어떤 국문 텍스트보다 순한글 표현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속향전》은 과거 당대에 이미 국외에까지 알려졌던 작품이었다. 《속향전》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들도 ‘속향’ 혹은 ‘속향’ 과 ‘이선’ 이란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숙향전》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춘향전, 심청전, 봉산탈춤, 각종의 사설시조 등에 그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작품이건 인물의 고난 장면에서는 숙향이, 남녀의 사랑 장면에서는 숙향과 이선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는 《숙향전》의 유명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당시의 고전문학 향유자들(작가와 작품 수용자를 포함한)은 ‘고난’ 하면 숙향을, ‘고난을 극복한 사랑’ 하면 숙향과 이선을 자동적으로 떠올렸던 것이다.

그러면 《숙향전》의 내용은 어떠한가. 어떤 점이 흥미 있고 감동적인가. 《숙향전》은 숙향의 아버지인 김전이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된 거북이를 살려주고, 후에 그 거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작품 초반에 설정된 이러한 구성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주요한 의미요소로 기능하여, 이른바 ‘은혜 베풀기－은혜 갚기’의 의미맥락을 형성한다. 《숙향전》에는 김전과 거북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숙향과 거북, 숙향과 도적, 숙향과 여러 짐승들 간의 관계에서도 ‘은혜 베풀기－은혜 갚기’가 폭넓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숙향전》은 ‘베풀고 갚기’가 독자들에게 주는 감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외에도 작품 구조의 주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과제의적 측면도 《숙향전》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주된 요소는 남녀주인공의 삶과 밀착되어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 이산과 숙향의

고난이다. 속향은 5세에 전쟁을 만나 가족과 헤어지고 쓸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그 헤어짐과 고난의 과정이 매우 팝진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부모가 죽어서든, 전쟁을 만나서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간에 삶의 초반에 으레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장면화 되지 않고 판에 박은 듯이 서술될 뿐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단지 ‘누구누구가 부모와 헤어져 고난에 처했구나’ 정도의 느낌만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속향이 처한 고난의 장면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묘사의 수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독자들은 그 장면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에 내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난에 처한 인물의 고통까지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내용은 속향을 향한 이선의 사랑이다. 이선은 꿈을 통해 속향이 자신과 천생연분임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이화정의 마고할미를 만나 속향을 탐문하는데, 마고할미는 이선에게 속향은 팔 다리 없고 앞 못 보는 병신이니 찾지 말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선은 속향은 자신과 연분이 있는 사람이므로, 또 자신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을 것이므로 병신이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고할미는 이선에게 속향이 거처온 노정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그 길을 따라 주유하면서 속향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선은 곧바로 김전의 집으로 그곳에서부터 이화정에 이르기까지 쓸한 고난을 겪으면서 속향을 탐문하는 정성을 보인다. 이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또한 이선은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투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선은 상대방의 어떠한 조건과 상태도 상관하지 않고 신의와 정성을 다한다. 그것은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의 남 주인공 중에는 멋진 인물이 많다. 구운몽의 양소유도 있고, 옥루몽의 양창곡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이선이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한다.

숙향과 이선의 사랑과 결혼에는 장애가 많았다. 우선 외적인 조건이 달랐다. 숙향은 이화정이란 술집에 의탁해 있던 고아였고, 이선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이상서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상서는 이들의 만남과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급기야 숙향은 구속되기에 이르고 이선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이 천정연분임이 확인되고 또 숙향의 인물됨이 매우 출중하므로, 두 사람은 마침내 화합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숙향이 양부모인 장승상 부부와 친부모인 김전 부부를 다시 만나는 장면도 대단히 감동적이다. 또 이선이 황태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선약을 찾아 이계를 탐험하는 서사도 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가져다 준다.

제1장 속향전 권지상

숙향전 권지 상

월궁 소아는 태을진군에게 주려고 열원단을 도둑질한
죄로 상제에게 죄를 얻어 인간 세상에 적강하여 모진
고초를 겪어야 하는 별을 받는다.

소아를 불쌍하게 여기는 여러 선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간의 이름으로 속향으로 태어난 소아는
자신의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데…

한편 태을진군 또한 이선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들은 과연 어찌 될 것인지.

1. 김전이 거북이를 살려주고 보답을 받다

화설. 송나라 시절에 남양 땅에 한 어진 선비가 있었으니 성은 김이요 이름은 전이라. 어릴 때부터 재기가 뛰어나 열살이 되기 전에 문필이 특출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바요, 그 부친 운수간 선생은 엄결적직[청렴결백하고 바르고 곧음]하여 부귀를 부운[뜯구름]같이 알아 산림에 처하니 천자께서 들으시고 간의태부를 제수하셨으나 굳이 사양하고 산중 미록[고라니와 사슴]으로 벗을 삼아 음풍영월하며 세월을 보내니 이런 까닭에 형세가 청한[청빈하고 한가로움]하였다.

하루는 김생이 벗을 전송하려고 나귀를 타고 반하수에 이르렀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고기를 잡다가 거북을 잡아 구워먹으려 하였다. 김생이 보고 말려 가로되, “이것이 매우 이상하니 죽이지 말라” 하니, 어부가 답하여 말하기를, “비록 이상하지만 우리들이 종일토록 고기 잡은 것이 없고 다만 이것을 잡았다. 시장하니 구워먹겠노라.” 하였다. 김생이 다시 보니 이마에 त자가 있고 배에 冫자가 분명하였다. 그 거북이 눈물을 머금고 김생을 우러러 보며 죽기 싫어하는 듯하므로 생이 불쌍하게 여겨 비싼값을 주고 거북과 바꾸어 물에 넣으니 거북이 재삼 돌아보며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 김생이 양양 땅의 벼를 찾아보고 돌아오다가 운교 다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비가 와 물이 넘쳐서 다리가 무너져 다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빠져죽게 되었다. 김생이 여러 사람을 붙들고 양천통곡하여 말하기를, “하늘은 김생을 살리소서” 하였는데, 문득 보니 깊은 물 속에서 매판[방석] 같은 것이 자기 앞을 향하여 섰거늘 생이 사세 급하여 그 위에 올라서니 그것이 변하여 꼬리를 치고 네 발을 휘적여 물가로 나아갔다. 생이 물에 내려 정신을 차려보니 분명히 반하수에 넣었던 거북이었다. 생이 절하여 사례한대 거북이가 입으로 안개를 모으더니 생의 앞에 무지개가 생겨났다. 생이 황홀하여 무수히 재배하더니 문득 그 기운이 스러지며 제비알 같은 구슬이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오색광채 찬란하고 그 속에 은은한 글이 있으되, 하나는 목숨 수자요 하나는 복 복자였다. 김생이 생각하기를 전에 반하수에서 구해준 은혜로 이 구슬을 줌이로구나 하고 가지고 왔다.

김생의 나이가 약관이 이르렀으나 집이 빈한하여 처를 얻지 못하였다. 형초 땅에 장회라는 사람이 있었다. 본래 공경자손[대갓집 자손]으로 가세가 유족하지만 다만 딸 하나를 두어 장중보옥으로 사랑하여 각별히 텍서[사위를 고름]하다가 김생의 이름을 듣고 통혼하므로, 생이 허락하고 운교에서 얻은 구슬로 빙폐하였다.

장회의 부인이 보고 가로되, “재상이 구혼을 다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저러한 빈한한 사람과 결혼하니 어찌 애답지 않으리오?”

장희가 왈, “혼인에 재물 의논하는 것은 오랑개의 풍속이라. 김생의 생김새와 풍채가 비상하니 장래 재상의 풍도가 있고 이 빙물은 만금으로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 하고 장인(匠人)을 불러 옥가락지를 만드니, 광채가 황홀하고 찬란하더라.

길일을 가려 성례하매, 김생 부부의 단아준일한 풍채가 가위 천정배필이라. 장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십여년 만에 장희 부처가 갑자기 병을 얻어 결국 함께 몰하였다. 김생 부부는 향화를 극진히 받들고 삼년상을 지냈다.

2. 속향의 출생

가산이 풍족하나 다만 일점혈육이 없어 항상 탄식하며 명산 대천에 정성들여 기도하였다. 칠월 망일에 김생 부처가 완월루에 올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흰 꽃 한 가지가 떨어져 장씨 앞에 내려지거늘 자세히 보니 행화도 아니요 매화도 아니요 맑은 향취가 은은히 흠어지는지라. 장씨 부부가 이상히 여기는 차에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 그 꽃이 흠어지거늘 장씨 탄식하고 들어와 잤다. 그 밤 꿈에 달이 뜨고 금두꺼비가 장씨 품에 들어오길래 놀라 깨었다. 꿈 이야기를 생에게 이르니 생이 왈, “나의 꿈에도 계화가 그대 앞에 떨어지고 금두꺼비가 품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 반드시 재주있는 자식을 낳으리다.” 하였다.

과연 그 달부터 잉태하여 십삭이 차니 이 때는 사월 초팔일이

었다. 이 날 밤에 오색구름이 집을 두르고 향기 진동하며 선녀 한 쌍이 촛불을 들고 들어와 김생에게 이르기를 “이제 부인이 오신다”하고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자 이윽고 서기가 집안에 가득했다. 생이 괴이히 여겨 내당에 들어가보니 이미 순산하였고 선녀가 유리병에서 향수를 기울여 아이를 씻겨 누이고 이르되,

“이 아이는 월궁 소아라. 상제께 죄를 얻어 태을선군과 함께 인간세상에 적강[신선이 세상으로 귀양오는 것]하였으니 귀하게 길러 하늘의 정한 바를 어기지 마소서. 이 아이의 배필은 낙양 이상서 집 아이이니 이는 태을이라. 나는 이제 그리로 가오니 이 아이 이름은 속향이라 하고 자는 소아라 하소서.”

하고 표연히 가거늘, 생이 들어가 아이를 보니 설부화용[눈 같은 살결 꽃같은 얼굴]이요 탈속비범하나 다만 여아임을 섭섭하게 여기고, 이로부터 이름을 속향이라 하고 자를 소아라고 하였다.

3. 다섯살에 병란을 만나 가족과 헤어지다

속향이 다섯살이 되었을 때, 병란이 일어나 형주를 침노하므로 백성들이 피난하였다. 김생도 가숙을 데리고 강릉으로 가는데, 도중에 도적을 만나 행장과 노복을 다 잃고 부인과 함께 속향을 업고 가던 중 도적이 점점 가까이 오는지라.

생이 능히 달아나지 못하고 장씨에게 이르되, “사세 위급하니 속향을 바위 틈에 감추고 갔다가 도적이 간 후에 데려감이

어떠하뇨?”

장씨가 울며 왈, “첩은 숙향과 함께 죽을 것이니 낭군은 몸을 피하소서.”

생이 왈, “어찌 그대를 버리고 홀로 가리요? 차라리 셋이 함께 죽으리라.”

장씨 왈, “장부가 어찌 아녀자를 위하여 죽기를 취하리요? 빨리 가소서.”

생이 종내 응하지 않으므로 장씨가 어쩔수없이 숙향을 반야산 바위 틈에 앉히고 끼었던 옥가락지 한 쪽을 숙향의 옷 안고름에 채우고 찬밥을 표주박에 담아 주며 이르되, “이것을 먹고 있으면 내일 데리러 갈 것이니 울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다. 숙향이 발을 구르며 울어 가로되, “모친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뇨?” 하며 따라오거늘 장씨가 무수히 달래고 있을 때, 돌아보니 도적이 멀지 않은지라. 숙향을 어쩔수없이 그 바위 틈에 버리고 장씨를 이끌어 뒷골로 달아났다.

도적이 다달아 숙향을 보고 묻기를 “네 부모는 어디 가고 너 홀로 앉아서 우느냐?”

숙향이 그 말을 다 이르니 도적이 죽이려 하였다. 그 중 한 늙은 도적이 말려 가로되,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를 죽여 무엇 하겠는가? 또한 그 아이 상이 다른 날 귀하게 될 것이니 죽이지 말라.” 하고 엎어다가 마을 근처에 놓고 갔다.

숙향이 어찌할 바를 몰라 길가의 가시덤불 밑에 앉아서 부모를 부르며 울거늘, 행인들이 불쌍히 여겨 밥도 주고 물도 주면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너를 데려가고 싶으나 우리 자식도

괴로우니 불쌍은 하건마는 어쩔수없다.” 하더라.

이 때는 추구월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밤이 되면 몸이 얼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갑자기 황새 한 쌍이 내려와 날개로 덮어주었다. 마음에 이상하게 여기면서 따스한 기운에 잠을 자고 깨어보니 날이 이미 밝았다. 부모를 부르짖으며 울고 있는데 문득 까치가 날아와 속향의 무릎 위에 앉아 울고 날아가거늘 속향이 이상히 여겨 까치 가는 데로 따라갔다. 여러 뒀을 넘어 한 곳에 다다르니 큰 마을이 있었다.

속향이 울면서 바장이더니[바장이다:이리저리 다니다] 마을사람이 물어 왈 “너는 어떤 아이길래 울면서 다니느냐?”

속향이 왈, “우리 부모가 내일 와서 데려가마 하더니 지금 오지 아니하므로 속절없이 우나이다.”

촌인이 왈 “이는 반드시 난중에 잃어버린 아이로다”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가는지라.

속향이 지향없이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삶은 고기를 물어다가 주거늘 먹으니 주린 것을 진정하였다.

이 때에 김생이 장씨를 깊이 숨기고 밤에 내려가 속향을 찾았으나 종적이 없는지라.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니 장씨가 듣고 기절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거늘, 생이 위로하여 왈, “속향이 만일 죽었으면 시신이 있을 것이로되 종적이 묘연하니 아무라도 데려감이 분명한지라. 옛날 왕균의 말을 생각하여 설움을 억제하라.”

장씨 왈, “일각인들 어찌 차마 잊으리오” 하고 애통하였다.

4. 후토부인을 만나 십오년의 운명에 대해서 듣다

이 때에 속향이 정처없이 다니다가 날이 저물어 나무에 의지하여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푸른 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으므로 속향이 그 꽃봉오리를 먹으니 배고프지 않고 정신이 황연[환하게 밝아짐]하였다.

청조가 날아가므로 새를 따라 한 곳에 이르니 굉장한 궁전이 있었다.

청조가 문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한 노고가 나와 들어가기를 청하거늘 속향이 노고를 따라 전 앞에 이르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칠보장복을 입고 교의에서 내려 맞으면서 이르기를, “선녀께서 인간 연화 중에 잠겨 나를 몰라보시는가?” 하고 시녀를 불러 경액을 가져오라 하니 시녀가 만호종의 호박배[만호종의 호박배: 오랑캐류의 호박으로 만든 잔이라는 뜻으로 이상하게 생긴 잔]를 바쳐 드리거늘, 속향이 받아 마시니 정신이 상활하게 되어 천상의 일과 인간으로 적감하던 일이 넉넉하게 떠올랐다.

부인에게 사례 왈 “첩이 득죄하여 인간의 고초를 겪거니와 부인이 관대하시니 지극 감사하여이다.”

부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땅은 명사계요 첩은 후토부인이라. 그대 인간에서 고생하시기로 원숭이와 황새와 까치와 청조를 보냈는데 보셨나이까?”

속향이 배사 왈 “부인 은덕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그대가 마침 인간의 고초를 겪고 있다

하나 어찌 과도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 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차려 크게 대접하였다.

숙향의 정신이 점점 맑아져 부인에게 물어 왈 “전에 들으니 명사계에는 시왕[十王]이 계시다 하니 옳은 말이니이까?”

부인 왈 “그러하니이다.”

숙향이 왈 “첩의 인간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사오니 만일 죽어 계시면 분명 시왕전에 계실 것이니 찾아보고저 하나이다.”

부인이 왈 “그대 부모도 또한 선군으로서 하계에 적강한지라. 기한이 차면 도로 천상으로 가실 것이니 명사계에는 오지 않으리이다.”

숙향 왈 “그러할진대 부모를 다시 만나리이까?”

부인이 왈 “월궁에 계실 적의 구성이라 하는 선녀가 옥황께 여쭙어 부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죄를 얻어 인간으로 내려왔으니, 부인이 장승상 집에 가서 전생 은혜를 갚은 후에 태을을 만나야 부모 거처를 알 것이니, 그리하면 자연히 십오년이 되리이다.”

숙향이 탄식하여 왈 “인간의 고행이 일각이 여삼추러니, 이제 십오년을 어이 지내리오?”

부인이 위로하여 왈 “그대 아무리 바쁘나 이미 하늘이 정하신 수이니, 이제 다섯 번 죽을 액을 지난 후라야 자연히 돌이키게 되리니 바빠 가소서.”

숙향이 왈 “인간의 길을 모르니 뉘 집에 가 의탁하리오?”

부인 왈 “가실 길은 내 지시하리니 장승상 집으로 먼저 가소서.” 하고 금분에 심은 나무 한 가지를 꺾어 사슴의 뿔에 매고

이르되 “이 사슴을 타고 가서 내리는 곳에서 배고프거든 이 열매를 먹으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다.

숙향이 사슴의 등에 오르니 그 사슴이 구름을 헤치고 가니 그 가는 바를 모를러라.

한 곳에 이르러 멈추므로 숙향이 내려 그 열매를 먹으니 배 부르고 천상 일을 아득히 잊게 되었다.

갈 바를 몰라 모란포기에 의지하여 잠깐 조는데, 이곳은 장승상 집 동산이었다.

5. 장승상의 의녀가 되다

승상은 남군 땅 사람이었다. 소년등과하여 삼십 세 전에 정승에 이르러 명망이 일세에 덮였으나 신종조에 이르러 간신의 참소를 만나 파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한거하였다. 다만 일점 혈육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다.

하루는 부인 꿈속에 한 선녀가 내려와 계화 한 가지를 주므로 놀라 깨어 이 말을 승상께 고하니 승상 왈 “일이 매우 이상하도다” 하였다.

후원에 가서 꽃구경을 하는데 문득 채운이 어리고 향취가 진동하더니 이윽고 구름이 걷히고 모란 포기 속에 한 아이가 졸고 있었다.

승상이 대경하여 부인을 청하려고 시비를 부르는 소리에 그 아이가 잠을 깨는지라.

승상이 물어 왈 “너는 어떤 아이길래 이곳에 와 즐기고 있느냐?
이름은 무엇이며 집은 어디냐?”

숙향이 왈 “내 이름은 숙향ियो 집은 어딘 줄 모르고 부모를
난중에 잃고 전전유리하여 다니더니 어떠한 짐승이 엮어다가
여기 두고 가더이다.”

승상 왈 “난중에 부모 잃은 아이로다.”

부인이 자세히 보니 꿈속에서 본 선녀의 얼굴 같거늘 괴이히
여겨 가로되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바라” 하고 친히 안고
들어가 품에 넣어 기출같이[자기 자식 같이] 기르더라.

숙향이 점점 자라 십세가 되어서는 행실과 재질이 자연 진
선진미하니 승상 부부가 지극히 애중하였다. 가사를 다 맡기고
매양 어진 배필을 구하여 후사를 부탁하고자 하였다.

비복 등이 다 심복하였으나 그 중에 사향이라는 시비가 원래
가사를 총찰하다가 숙향이 들어온 후로 가장 앙양하여[악에
받쳐서] 매양 숙향을 해할 뜻을 두었다.

6.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숙향

이 때 숙향의 나이 십오세였다.

하루는 승상 양위를 모시고 영춘당에 올라 춘경을 구경하
였는데 문득 저녁까지가 남자의 앞을 향하여 세 마디를 울고
가거늘, 남자 놀라 가로되 “저녁까지는 계집의 녀이라.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나를 향하여 우니 분명 내게 불길하도다.”

승상이 점복하여 이르되 “네게 해로운 징조로다.” 하고 잔치를 파하였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도적질하여 남자의 사사 그릇 속에 감추어두었다.

그 후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니 간 곳이 없는 지라. 괴이히 여겨 세간을 내어 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비를 나무라는데 사향이 들어오며 가로되 “무슨 일로 이리 요란하나이까?”

부인 왈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요?”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왈 “저번에 숙향 아씨가 부인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지 치마 앞에 감추어가지고 제 침방으로 가더니 수상하더이다.”

부인 왈 “숙향의 빙옥같은 마음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사향이 왈 “숙향 아씨가 전일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자기 세간을 굳히려고 그러는지 매우 부정함이 많더이다. 아무려나 숙향 아씨 세간을 뒤져보소서.”

부인이 또한 의심이 들어 숙향을 불러 이르되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는지 보아라.”

숙향이 왈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으리이까?” 하고 그릇을 내어놓고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왈 “네가 아니 가져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가로되 “숙향을 친녀같이 길

렸더니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내게 들켰사운데,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라 괴이치 않거니와 장도는 부당지물이라. 그 일이 매우 수상하니 어찌 처치하면 마당하리이까?”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여 왈 “숙향 아씨 거동을 보니 혹 편지를 쓰기도 하고 외인이 종종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를러이다.”

승상이 대경하여 왈 “제 나이가 찼으므로 정녕 외인으로 상통하는 것인가? 두었다가는 가내에 불측한 일이 있을지니 빨리 쫓아내소서.” 하거늘,

부인이 나와 보니 숙향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다. 부인이 불러 크게 꾸짖어 왈 “우리가 자녀가 없으므로 너를 기출같이 길러 어진 배필을 얻어 네 몸도 의탁하고 우리 후사와 허다한 가산을 맡기고저 하였는데 네 마음이 매우 불량하니 장차 어찌하리요? 나는 너를 오히려 아끼나 승상은 노하시니 이번에 의복을 가지고 근처에 가 있으면 내 조용히 가라앉혀 다시 데려오리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숙향이 눈물을 훔치며 왈 “소녀가 다섯 살에 부모를 잃고 동서유리 하옵다가 천행으로 승상과 부인의 애휼하심을 입사오매 그 은혜 망극하온지라. 종신토록 지성으로 받들기가 원이더니 천만 의외에 이런 일이 있사오니, 도무지 소녀의 팔자라, 수원 수구하리요? 그러나 이는 요망한 사람의 간계로 소녀를 죽이려 하옵이니 부인은 살피소서. 이제 누명을 변명할 길이 없는지라 차라리 부인 앞에서 죽고저 하오니 부인은 소녀의 원대로 배를 헤쳐 저자거리에 걸어두면 왕래하는 사람 중 하나라도 소녀의

억울함을 알 것이니 소녀의 누명을 씻으면 지하에 가도 눈을 감을까 하나이다.” 한다.

부인이 그 경색을 보고 황연히 대각하여 왈 “너를 시기하는 자가 음해하는 것이구나. 내 미처 생각지 못하여 네 심사를 상하게하니 어찌 내 불찰이 아니리요?”

사향이 거짓 승상의 말로 고하되 “‘숙향의 행실이 발칙하니 내 벌써 내치라 하였거늘 뉘라서 내 뜻을 거역하느뇨?’ 하고 대로하시더이다.”

부인 왈 “승상이 저렇듯 노하시니 잠깐 몸을 피하여 있으면 사세를 보아 데려오리니 조금도 염려 말라.”

숙향이 재배 왈 “부인께서 두둔하여 보호하심이 간절하시나 승상의 노하시고 책망하심이 엄절하시니 소녀의 죄 만사무석 이로소이다.”

사향이 또 고하되 “승상께서 숙향을 바빠 보내고 아뢰라 하시더이다.”

부인이 더욱 애련하여 시녀 금향에게 명하여 숙향의 입던 의복과 쓰던 기물을 다 주라 하니 숙향이 체읍하여 왈 “부모를 다시 못 뵈웁고 금일에 여차한 악명을 입사와 죽게 되오니 다만 이것이 유한이로소이다.”

부인 왈 “내 승상께 여쭙어 무사하도록 하리라” 하니 사향이 그 거동을 보고 부인이 주선할까 겁을 내어 가로되 “승상이 숙향을 그냥 두었다 하시어 대로하시더이다.”

부인 왈 “아직 가지 말라” 하고 승상께 들어갔다.

승상이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간밤 꿈에 벽도 가지에 앵무

가 깃들었거늘 한 종이 도끼를 가지고 가지를 베어 내려치니
앵무가 놀라 날아가버리니 꿈이 불길한지라. 마음이 편치 않으니
부인은 술을 가져오소서.”

부인이 시녀에게 주찬을 들이라 하여 승상께 권하며 가로되
“전에 장도와 봉차를 첩이 속향의 그릇에 넣고 망연히 잇은
탓으로 애매[억울]하게 악명을 입혀 심히 슬퍼하니 차마 불쌍
하더이다.”

승상 왈 “그러하면 바빠 불러 위로하사이다.”

사향이 이 말을 듣고 대경하여 급히 나가 부산스레 왈 “승상
이 자네를 그냥 두었다고 하여 부인을 크게 책망하시니 급히
나가라” 하거늘

속향 왈 “부인이 나오시거든 하직하고 가겠노라” 하니

사향이 소리질러 구박하여 가로되 “승상과 부인이 너를 호의
호식으로 길러 기출같이 하시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몹쓸 욕심
으로 도적질하다가 들켰으니 무슨 낯으로 하직하고저 하느냐?
부인도 승상 노책[분노와 책망]을 받자와 나오실 일 없고 나도
너를 더디 보낸다 하시어 죄를 얻겠으니 바빠 나가라” 한다.

속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상
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려 차마 잊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속향을 이끌어 문 밖에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며 이르되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이 나리라.” 하였다.

7. 용녀의 구함을 받고 선녀에게서 앞일을 듣다

숙향이 멀어질 때까지 승상의 집을 돌아보면서 울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문득 큰 강이 있었다. 표진강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에서 바장이는데 날이 저물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면을 돌아보니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깎수건을 쥐고 치마를 들쳐쓰고 물 속에 뛰어드니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수 없었다. 모두들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였다.

이 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에서 부터 나와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으니 편하기가 반석같더라.

이윽고 오색 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새양머리, 갈래머리]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달아 물어 가로되 “부인은 바삐 이 배에 오르소서”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었는지라.

숙향을 안아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이 숙향에게 향하여 재배 왈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향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깐 술을 먹었는데 자칫 구하지 못할 뻔하였나이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면서 가로되 “어디서부터 와서 구하셨나이까?”

용녀가 답하여 왈 “예전 사해 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깬거늘,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죽게 되었던니, 김상서의 구함을 입어 지금 살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더니, 어제 부왕이 ‘옥경에 조회할새 옥제 말씀을 들으니 소아가 천상에 득죄하여 김전의 집에 적강하여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난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시더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뒤에 기다리다가 죽이지 말고 옥만 보이고 보내라’ 하시므로 내 특별히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더니, 그대 또한 와서 구하시므로 나는 가노라.” 하더라.

숙향이 선녀에게 물어 왈 “그는 어떤 사람이관대 강물을 평지같이 다니느뇨?”

선녀 왈 “그는 동해 용왕의 딸이라. 전일 부친의 은덕으로 살아났으므로 이제 와 부인을 구하고 가니이다.”

숙향 왈 “나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고행하다가 악명을 입어 차마 세상에 있지 못하여 이 물에 빠져죽으려 하거늘 그대 멀리 와서 수고로이 구하시니 감격하여이다.”

선녀 왈 “부인이 인간 진애에 잠겨 우리를 모르시도다.” 하고 이슬같은 차를 주며 가로되 “이를 먹으면 자연 아시리이다.”

숙향이 받아먹으니 그제야 월궁 소아로서 태들과 글 지어 창화하고 월연단을 도둑질하여 태들에게 준 죄로 인간에 적강한 일과 그 아이 둘은 부리던 시녀라. 그리하여 붙들고 반기며

이르되 “내 전생의 죄 중하므로 부모를 잃고 고생은 하려니와 장승상 집 악명은 무슨 일일꼬?”

선녀 왈 “부인은 한하지 마소서. 이것이 도무지 하늘이 정한 바이니, 장승상 집 인연도 단지 십년뿐이려니와 사향이 부인을 무함한 죄로 옥제 진노하사 이미 뇌정으로 죽였으니 부인의 애매함을 승상 집에서 알고 사람을 부려 들에 와서 찾다가 못하여 도로 갔으니, 이는 이미 밝히 갚았거니와, 앞으로도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소서.”

숙향이 송연하여 왈 “지난 일도 망극하거늘 또 두 액을 어찌하리요? 승상과 부인이 나의 애매함을 알았을진댄 그리로 가서 액을 면코저 하노라.”

선녀 왈 “이는 다 하늘의 정한 바라 임의로 못할 것이며, 하물며 태을 있는 곳이 장승상 집과 상거가 삼천삼백 리이니 서로 만날 길이 아득하고, 태율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보리이다.”

숙향 왈 “태율이 어디 있으며 인간 성명은 무엇이뇨?”

선녀 왈 “저번에 향아의 말씀을 들으니 태율은 낙양 땅에 위공의 자제 되어 부귀를 누린다 하더이다.”

숙향이 탄식하여 왈 “동시에 적강하였는데 태율은 어찌 영화를 누리고 나는 어찌 고생하느뇨?”

선녀 왈 “처음에 부인이 먼저 득죄하였으므로 곤궁을 겪게 하고 태율은 상제께 가까이 모시던 신관이라 상제 사랑하시되 향아의 청으로 부득이 적강하였으나 귀하게 점지하시니이다.”

숙향 왈 “태을 있는 곳이 삼천삼백 리라 하니 태을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 가 의탁하며 우리 부모는 어디 가 만나리요?”

선녀 왈 ‘부인이 먼저 가시면 득달키 어려우니 우리 연엽주를 타시면 순식간에 가실 것이요,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러 가 기다리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면서 능파곡을 부르고 배를 띄우니 빠르기가 살갈아서 순식간에 한 곳에 다다랐다.

선녀 왈 “부인은 여기서 배를 내려 동쪽으로 가면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으리이다.”

하고 동정굴 같은 것 두 개를 주어 왈 “가다가 시장하거든 먹으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숙향이 사례하고 배를 내려 동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배가 고파 선녀가 주던 것을 먹으니 배는 부르나 천상 일은 다 망연히 잊어버리고 인간 일만 생각하는지라.

심중에 헤아리되 짧은 계집이 외로이 가다가 옥보기도 쉬울 지라 하고 촌가에 비단 옷을 주고 헨 옷을 바꾸어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한 눈을 감고 한 다리를 저는 체하여 막대를 짚고 가니라.

8. 사향은 하늘에 죄얻어 죽고 승상은 속향을 그리 워하다

각설, 앞서 장승상이 부인으로부터 속향의 애매함을 듣고 궁축히 여겨 바빠 부르소서 하거늘 부인이 듣고 기뻐하여 즉시 시비를 시켜 속향을 부르니 사향이 듣고 놀라 들어오며 얼굴을 찡그려 가로되 “그렇게까지 한 줄 모르시노라” 하고 혀차고 괴탄하였다.

부인이 물어 왈 “무슨 일이뇨?”

사향이 대답하여 왈 “부인이 들어오신 사이에 속향이 제 방으로 들어가 무엇인지 뭉쳐 옆에 끼고 문 밖에 내달아 엎드리고 굶드리지며 [전지도지] 달아나기로 소비 따라간즉 행여 잡힐까 하여 더욱 급히 가길래 따르지도 못하고 소리쳐 이르되 ‘어찌 부인을 아니 뵈고 가느뇨’ 한즉 속향이 하는 말이 ‘나를 구박하여 내치거늘 내 어찌 하직하리요’ 하더이다.”

부인이 대경 왈 “내 제 죄를 벗기고 친히 이를 말이 있으니 너는 잔말말고 빨리 데려오라” 하니

사향이 부인 보는 데서는 바빠 가는 체하고 내달아 오히려 집에 있다가 이윽고 바빠 오는 체하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가로되 “벌써 멀리 갔사오니 소비 목에 숨이 닿도록 따라가 부인 말씀은 전하온즉 속향이 입을 빼죽이며 이르되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더뇨? 내 얼굴과 재주를 가지고 어디 가 의식[衣食]이 없으리요?’ 하며 부인을 무수히 원망하고 어떤 남자로 난만히

희롱하며 가오니 그 망측한 일은 차마 이르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흔들 즈음에,

문득 현 누비옷 입은 종이 밖으로부터 천연덕스레 내당으로
들어오거늘,

승상이 그 모습이 비범함을 보고 일어나 맞으니 종이 읊하
고 앉거늘, 승상이 물어 왈 “선사는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로
오셨느냐?”

그 종이 답 왈 “나는 천상에서 온 종이러니, 상제 명으로 승상
집 옥석을 가리러 왔으니 가중 비복을 다 부르소서.”

승상 왈 “내 집에 옥석 구분할 일이 없으니 천승이 수고로이
하시도다.”

천승 왈 “승상이 속향의 일을 아시니까?”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사향이 내달아 이르되 “이 중은 어
디에서 온 종이관대 속향의 말을 끝이듣고 재상가에 무례히
출입하여 무슨 말을 하느냐? 승상은 바빠 저 중을 잡아내려
치죄하소서.” 하니

천승이 양천대로 왈, “네 승상 집 가사를 주장하여 도적질로
위업하다가 속향이 들어온 후로는 네 임의로 못하여 속향을
원망하여 악명을 입혀 내쳤으니, 승상은 속았거니와 하늘조차
속일쏘냐?” 하고

소매로부터 자그마한 불수레를 내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니
문득 우레 진동하여 큰 비 담아붓듯이 오며 벽력소리 요란하며
공중에서 동이같은 불덩이가 내려와 사향을 내어놓고 제 죄악
을 날날이 수죄하고 짓이겨 죽였다.

승상 양위와 가중 제인이 모두 기절하였다가 이윽고 부인이 정신을 차려 가로되 “사향은 제 죄로 죽었거니와 가련할사 속향은 어디로 갔는고?” 하며 속향이 있던 방에 가 보니 벽상에 혈서가 있는지라.

하였으되,

슬프다, 승상과 부인 은혜 십년 양육 기정을 갚지 못하고 악명을 입어 하직하지도 못하여 사향의 구박이 급하매 속절없이 죽을 땅으로 가도다

하였거늘, 부인이 그 글을 보고 통곡 왈 “어여뵤사 속향이여, 어디 가 살았으면 요행 다시 보려니와 만일 죽었으면 어디 가 신체나 거두리요?”

승상이 또한 눈물을 흘리고 부인을 위로하였다.

이 때 승상의 조카 장원이 이 말을 듣고 승상께 고하여 왈 “소질이 아까 이리 올 제 여차여차한 여자가 표진강변에서 주저하더니 그 아인가 하나이다.”

승상이 듣고 바빠 노자[종복]에게 분부하여 표진강변에 가서 찾아오라 한대, 이윽고 돌아와 고하기를 “아무리 찾아도 종적이 없삽고 근처 사람들에게 묻자오니 이르되 아까 한 아이 양천통곡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하더이다.”

부인이 듣고 수차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가로되 “이제는 어디 가 속향을 다시 보리요” 하고 식음을 전폐하므로 승상이 민망히 여겨 화사를 청하여 속향의 화상을 그려 부인을 위로코저 하였다.

늙은 종 장석이 고하되, “숙향 아씨 십세 전에 소인이 업고 고죽정에 추천 구경을 갔다가 장사 땅에 사는 조적이라 하는 화원이 숙향 아씨를 보고 놀라 이르되, 내 천고 국색의 화상을 많이 보았으되 이 아이 얼굴 같은 이는 처음이라 하고 숙향 아씨 모양을 그려 갔사오니, 이 사람을 찾아 화상을 구하소서.”

승상이 대희하여 즉시 조적에게 구하니, 조적이 추탁[거절]하고 즐겨 팔지 아니하거늘 장석이 돌아와 고하고 다시 황금 백냥을 주고 바꾸어 오니, 과연 숙향이 다시 살아온 듯하더라.

부인이 안고 구르며 슬퍼하여 침방에 걸어두고 조적으로 제를 하니라.

9. 화덕진군에게 구함을 받고 마고할미에게 의탁하다

차설, 숙향이 울며 동쪽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수천리 갈대 숲이 하늘에 닿았고 인적이 없는지라. 홀로 갈대 속으로 길을 헤쳐가는데,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둑해져 갈포기에 의지하여 잠들었다. 갑자기 미친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불꽃이 사면으로 에워싸거늘 숙향이 놀라 깨니 천지 아득하며 진퇴유곡이라. 망지소조[罔知所措: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더니,

문득 한 노인이 막대를 짚고 와서 물어 왈 “너는 어떤 아이

관대 무인심야에 화재를 만났는가?”

숙향 왈 “소녀는 동서유리하옵다가 길을 그릇 들어 이곳에 와 뜻밖의 화재를 만나 죽게 되었사오니 바라건대 노인은 소녀를 구제하소서.”

노인 왈 “내 이미 이 때를 당하였고 사세위급하니 네 옷을 벗어버리고 내 등에 오르라.”

숙향이 옷을 벗고 노신인의 등에 오르니 불꽃이 벌써 있던 곳에 닥쳤는지라. 노인이 소매에서 붉은 부채를 꺼내어 부치며 무슨 진언을 하니 화염이 범치 못하는지라.

노인이 숙향을 업어다가 노전을 건너 내려놓고 옷소매를 떼어주며 가도되 “이것으로 앞을 가리우고 동으로 가면 구할 사람이 있으리라.”

숙향이 배사하여 왈 “감히 문잡노니 노인은 뉘시니이까?”

노인이 웃으며 왈 “나는 남천문 밖의 화덕진군이거니와 나라도 아니었으면 화재는 고사하고 삼천 리 노전을 어찌 지나가 리요?”

문득 간 데 없더라.

숙향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동으로 향하였다.

날은 저물고 별거벗은 몸에 배도 고프고 능히 갈 길이 없어 주저할 즈음에 한 노고[노파]가 광주리를 옆에 끼고 가다가 숙향의 곁에 앉으며 물어 왈 “너는 어떤 여자관대 별거벗고 노변에 앉아 우느냐?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잃었느냐, 뉘게 무슨 일로 쫓기었느냐?”

숙향 왈 “나는 본디 부모를 잃고 동서유리하는 걸인이라. 남

의 것 도적하다가 쫓긴 일도 없고 불한당 만난 일도 없이 자연
그러하니이다.”

노고가 왈 “난중에 부모를 잃고 다님이 내쳐짐이나 다르며
장승상 집 봉차와 장도 일로 나왔으니 도적이냐 다르며 노전에
서 의복을 불에 태워버렸으니 불한당 만남이나 다르지요?”

숙향이 이 말을 듣고 놀라 물어 왈 “할미는 어찌 내 일을
자세히 아느냐?”

노고가 왈 “자연히 알거니와 그대는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느
뇨?”

숙향 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나이다.”

노고가 왈 “나도 자식 없이 혼자 몸이니 나와 함께 감이 어
떠하뇨?”

숙향이 그 할미 거동이 비상함을 보고 다른 의심이 없는지라.
대답하여 왈 “할미 나를 버리지 아니할진대 어찌 사양하리오
마는 내 이리 벗고 배고프니 민망하여이다.”

노고가 광주리에서 삶은 나물을 주거늘 숙향이 먹으니 과연
배부른지라.

노고가 또 위에 입었던 옷을 벗어 입히고 돌아가매 숙향이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한 촌락이 있으되 매우 부요하고
정결한지라. 그 곳을 지나 한 뿔 아래 다다르니 수간 모옥이
있고 사립문을 반개하였거늘 노고를 따라 들어가니 집은 적으
나 매우 정채하고 세간은 많지 않으나 또한 소담하며 집안에
타인은 없고 다만 청삽사리 문지방을 베고 누웠다가 숙향을
보고 꼬리치며 반기는 듯하더라.

노고가 숙향을 방에 앉히고 의복 한 벌을 내어 입히며 석식을 갖추어 먹였다.

숙향이 그로부터 머물러 있는 지 오래되 세수를 하지 않고 마치 병신인 체하였다. 하루는 노고가 왈 “내가 네 거동을 보니 본시 병신이 아니라 명월이 구름을 벗어난 듯하거늘 종시 병신인 체하니 내 눈이 병들지 않았고 또 내 집이 주가라 여러 사람이 왕래하거늘 저렇듯 더럽게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다 추하게 여기느니라.” 하고 나가는지라.

숙향이 여러 날 있으면서 동정을 보니 남자는 없고 밖에 사람이 출입하나 내외 현격하니 별로 상관의 없으므로 비로소 세수하고 약간 아미를 다스리고 의상을 고쳐 사창에 의지하여 수를 놓더라. 노고가 들어와 보고 드립다 안고 가로되 “어여쁠 사내 딸이야, 전생에 무슨 죄로 광한전을 이별하고 인간고행을 겪었는고?”

숙향이 대답하여 왈 “할미 나를 기출같이 여기니 어찌 실상을 은휘하리요? 나는 과연 사대부의 자식으로 난중에 부모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 길에서 바장이고 있었는데 행여 욕을 볼까 저어하여 병인인 척하였더니, 이제 할미를 만나매 부모같이 섬길지니, 원컨대 서로 속이지 말고 몸을 그릇되게 말지어다.”

노고가 염용[몸가짐을 고치고] 대답하여 왈 “남자가 과연 그러하도다. 어찌 남자의 일생을 그르치게 하리요?” 하고 이로부터 공경애중하더라.

숙남자가 본디 천지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어 일찍이 수를 놓아 값을 받으니 집이 매우 부유해진지라.

10. 천상의 꿈을 수놓다

이러구러 사월 망간[보름께]이 되었는데지라. 할미는 술을 팔러 나가고 남자가 홀로 사창에 의지하여 수를 놓던 중에 문득 청조가 날아와 매화에 앉아 울거늘 남자 왈 “저 새도 나와 같이 부모를 잃었는가? 어찌 저리 슬피 우노!” 하고 자연 심개가 비감하다가 잠깐 졸았다.

청조가 남자에게 이르되, “그대 부모가 저기에 계시니 나를 좇아오라” 하거늘 남자가 청조를 따라갔다.

백옥련 못 가운데 한 누각이 있으되, 산호기둥 유리들보 호박주초[주춧돌]에 휘황찬란하니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고 있는데, 조금 후 서쪽에서 오색채운이 일어나며 모든 선관과 선녀들이 학도 타고 흑 봉도 타고 차례로 들어가는데 육룡으로 멩에하여 오는 이는 상제시라.

그 뒤에 삼태성과 여래와 관음이 시위하여 들어가시니 여러 선관이 지나되 본 체 아니 하더니, 그 중 한 선녀가 연화를 쥐고 앉았으니 이는 향아라.

숙향을 보고 가로되 “반갑다. 소아여. 인간 재미가 어떠하뇨? 전일 놀던 곳을 다시 보라.” 하거늘, 숙향이 향아를 따라 들어갔다.

궁전이 굉장한 곳에 보살이 소년 선관을 안내하여 들어와 복지하니 상제 왈, “태을아, 인간 고락이 어떠하며 소아를 보았느냐?”

태을이 황공사례한대, 향아가 주하여 왈 “소아가 누차 사액

을 지내었사오니 그만 죄를 사하소서.”

상제 여래를 명하사 수한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왈 “수한은 칠십을 점지하나이다.” 또 칠성을 명하여 자손을 점지하라 하시니 칠성이 왈 “이남일녀를 명하나이다.” 또 남두성을 명하여 복록을 점지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왈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 되게 하나이다.”

상제 소아를 명하사 반도와 계화를 태을에게 주라 하시니 태율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주어 보니 소아가 부끄러워 몸을 돌이키다가 옥지환의 진주가 떨어지므로 집고져 할 때 태율이 먼저 집어 손에 쥐어주는지라.

소아가 하릴없이 전상으로 돌아올 즈음에 할미가 들어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니 남가일몽이라.

할미가 웃으며 왈 “남자가 요지경을 보니 어떠하더뇨?”

남자가 대경 왈 “내 몽사를 어찌 아느뇨?”

할미가 왈 “자연히 알거니와, 그런 광경을 보고 그저 버리기 아까운지라. 남자의 재주로 수를 놓아 그 경을 기록함이 어떠하뇨?”

남자가 유희하게 여겨 즉시 그 경을 수놓아내니 할미가 칭찬하여 왈 “세상사람이 알아보거든 팔리이다.” 하고

수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니 아무도 아는 이 없더라.

장사 땅 조적이란 사람이 물정을 아는지라. 이 수를 보고 가로되, “이 수를 누가 놓았느뇨?”

할미 왈 “내 작은딸의 수품이로소이다.”

조적이 왈 “할미는 어디 사느뇨?”

할미 왈 “나는 낙양 동촌 술파는 집이 내 집이로소이다.”

조적이 왈 “이 수 값이 얼마나 하느냐?”

할미 왈 “소견대로 하소서.”

조적이 왈 “이 수놓은 수품과 그림 경치는 만금이 부족하나 백금을 주노라.” 하고 이르되 “이 그림이 천상 요지경이니 할미 딸이 어찌 이런 재주를 품었느냐? 반드시 범상한 사람의 수품이 아니라” 하였다.

할미 돌아와 조적의 설화를 전하니 남자가 놀라 가로되 “그 수 뜻을 알아보니 가위 박물군자로다.” 하더라.

11. 이선의 이야기

화설, 낙양 땅에 한 명공이 있으니 성명은 이모라. 대대 공후 자손으로 공의 대에 미쳐 벼슬이 이부상서에 이르고 또 위공을 봉하니 명망이 조야에 파다하고 부귀가 일세에 으뜸이더라.

다만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부인이 친가에 갔다가 대성사 부처가 영험하다는 말을 듣고 향축을 갖추어 생자[자식을 얻음]하기를 빌고 돌아왔더니 이날 밤 꿈에 한 부처가 와서 이르되 “상서가 전생에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무자하게 점지하였더니 그대 정성이 지극하므로 귀자를 점지하노라.” 하고 “수가 돌아가라” 하니 부인이 사례하다가 깨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부모께 하직하고 부중에 돌아오니 상서가 맞아 물어 왈 “부

인 어찌 더디 오시느뇨?”

부인이 답 왈 “대성사 부처의 신통함이 영검하단 말을 듣고 자식을 빌고 왔나이다.”

상서가 왈 “자식을 빌어 낳을 양이면 천하에 무자할 이 뉘 있으리오?” 하였다.

그날 밤 꿈에 흥포 입은 선관이 채운을 타고 내려와 재배하여 왈 “소자는 옥제 앞에서 사후하던 태을진인이러니 득죄하여 인간에 내침을 당하였기로 의탁할 곳이 없더니, 대성사 부처가 지시하기에 왔나이다” 하거늘,

놀라 깨어나 부인에게 물어 왈 “부인이 대성사에 가 기도하시기로 몽사가 여차하니 기이하여이다.” 하더라. 과연 그 달부터 잉태하여 십삭이 차니 이 때는 사월 초팔일이라.

문득 채운이 집을 두르고 이상한 향내 만당하거늘 부인이 괴이히 여겨 시비로 하여금 가내를 소쇄하더니, 오시경이 되어 선녀가 들어와 이르되 “때가 늦어가니 부인은 편히 누우소서.” 하고 붙들어 구호하더니 이윽고 한 옥동자를 순산한지라.

선녀가 향수를 기울여 아이를 씻겨 누이거늘 부인이 물어 왈 “선녀는 뉘시오?”

선녀가 답하여 왈 “우리는 해산을 담당하는 선녀러니 금일 태을선군이 하강하기로 왔거니와, 이 아이 배필은 낙양 땅 김전의 여아 숙향이니 월중 소아로서 하강하기로, 이제 그리로 가나이다.” 하고

문득 간 데 없더라.

이 날 위공이 궐내로부터 부중에 돌아와 아이를 보니 꿈에

보던 선관같거늘 이름을 선이라 하고 자는 태을이라 하니라.

선이 점점 자라 팔구세 되매 문일지십하는 재주가 있고 기골이 비상하니 공경대부의 딸 둔 자가 구혼하지 않는 이 없더라. 선이 매양 자부하여 가로되 월궁 선녀 아니면 취처치 않으리라 하고 부모가 또한 택부[며느리를 고름]하기를 극진히 하더라.

하루는 선이 부친께 고하여 왈 “과것날이 불원하오니 구경코저 하나이다.”

위공 왈 “네 재주는 남는 바 있으나 일찍 등과함이 불가하니 아직 더 기다리라” 하니

선이 울적하여 산수에서 놀기를 일삼더니 한 곳에 이르니 대성사 절이라. 두루 유람하다가 몸이 곤하기에 난간에 의지하여 조는데

부처가 이르되 “금일 서왕모 잔치에 모든 선관 선녀가 모이니 니 그대 나를 따라가 구경하라” 하고 한 곳에 다다르니 연화가 만발하고 누각이 의의한지라[의의하다: 아름답고 무성하다].

부처가 왈 “내 먼저 들어가리니 그대는 뒤를 따르라.”

이선이 왈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니 어찌하리요?”

부처가 웃고 대추 같은 것을 주거늘 선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황연하여 전생의 일이 넉넉한지라.

부처를 따라 들어가 옥제께 뵈오니 상제 문 왈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이선이 복지사죄한대 상제가 한 선녀에게 명하여 반도와 계화를 주라 하시니 선녀가 옥반에 받들어 주거늘 이선이 받으며

선녀에게 눈주어 본대 선녀가 부끄러워 몸을 뒤칠새 옥지환에 박은 진주가 떨어지더라. 선이 집어 손에 가져가 전해주려 할 즈음에 그 절 저녁 북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호접춘몽이라.

요지경이 눈에 완연하고 진주가 손에 쥐였으므로[쥐이다: 쥐어져 있으므로] 글을 지어 기록하니라.

이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회에 분명할 것인지라.

숙향전 권지상 종

제2장 속향전 권지중

숙향전 권지 중

이선이 꿈에서 본 사연으로 인하여 숙향을 찾아간다.
마고선녀는 이선을 시험하려고 숙향이 거쳐온 고난의
길을 이선이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였다.
마침내 이선과 만난 숙향이 그와 결혼하였으나
아직도 고난은 남아 있었으니…

12. 이선이 마고선녀를 찾는다

각설, 이선이 이후로 공명[공로와 명성]을 얻을 생각이 없고 다만 소아를 유련[그윽히 그리워함]하더니, 하루는 한 사람이 뱃기를 청하거늘 불러보니 그 사람이 예를 갖추어 절하고 왈 “소생은 남경 사는 조적이러니, 한 족자의 찬제를 얻고자 하여 불원천리하고 왔노라” 하고 족자를 드리거늘 선이 받아보니 꿈에 보던 요지경이라.

심중에 의아하여 물어 왈 “이 족자를 어디서 얻었느뇨?”

조적이 그 놀람을 보고 생각하되, 그 할미 행여 이 집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여 가로되 “낙양 동촌 술 파는 노고에게서 샀노라.”

선이 왈 “이는 선경에 속한 것이니 그대는 불가하도다. 내게 수족자가 있으니 바꾸거나 증가를 받고 팔이 어떠하냐?”

적이 왈 “백금을 주고 샀으니 더 주면 팔고 가리이다.”

선이 즉이 이백금을 주고 사서 절에서 지은 글을 금자로 써 족자를 꾸며 침실에 걸고 주야로 소아만 찾고저 원일러라.

하루는 깨달아 생각하기를 나는 요지에 다녀왔거니와 이 수 놓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관대 천상 일을 알아 넉넉히 그렸는고? 필경 비상한 사람이니 동촌 술파는 할미를 찾으면 자연

알겠구나 하고 노새를 타고 가니 이 때는 하사월이라.

숙향이 누상에서 수를 놓고 있었는데 문득 청조가 석류 꽃을 물고 낭자 앞에 앉았다가 북쪽으로 날아가거늘, 낭자가 괴이히 여겨 새 가는 곳을 보려고 하여 주렴을 들고 바라보니 한 소년이 소요관에 청포를 입고 노새를 타고 할미 집으로 향하여 오거늘 자세히 보니 요지에서 진주 집어주던 선관 같은지라.

마음에 반갑고 놀라워 주렴을 걷고 앉아 있었는데 그 소년이 문밖에 와서 주인을 청하거늘 할미가 나가보니 북촌 이상서 집 공자라.

맛아 들어가 좌정 후에 물어 왈 “공자가 누추한 곳에 임하시니 감격하여이다.”

이랑이 왈 “마침 지나다가 할미 집 좋은 술을 생각하고 왔으니 한 잔 술을 아끼지 말라.”

할미가 웃으며 왈 “내 집에 술이 많은데 늙으니 벗이 없어 먹지 못하더니 다행히 공자를 만났으니 싫도록 먹사이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윽고 자기 반에 오색 접시 다섯을 놓았으되 인간에서 못 보던 바라. 이랑이 매우 의아하여 술이 반취하매 묻고자하더니, 할미 왈 “공자는 촌가의 소쇄한 맛을 아시니이까?”

이랑 왈 “옛말에 이름 모르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으니 근본을 알고저 하노라.”

할미 왈 “늙으니 망령되이 남의 집에 가서 얻어온 것이니 비록 무미하나 하저[젓가락을 댐]나 하소서.”

이랑 왈 그러하나 이름을 알고 먹으리라.

할미가 웃으며 왈 “유리 접시에는 일광초니 동해 용왕에게 얻어오고, 산호 접시에는 청광초니 말유산 길원선에게 얻어 오고 급패 접시에는 신광초니 천태산 마고성녀에게 얻어오고 밀화 접시에는 금광초니 봉래산 구류선에게 얻어오고 만호 접시에는 반도이니 요지 서왕모에게 얻어왔나이다.”

이랑이 할미 말을 듣고 이르되 “할미 말이 매우 황당하도다. 봉래 동해 등이 다 선경이라, 진황 한무도 못 얻은 것을 요마한 [변변치못한] 할미가 어찌 얻어왔으리요?”

할미 웃으며 왈 “내 비록 기력이 없어도 사해팔황을 임의로 왕래하거니와 공자같이 구차히 남에게 인도하여 다니리오?”

이랑이 왈 “내게 천 리를 가는 노새가 있으니 임의로 다니거든 어찌 남이 인도하리오?”

할미 왈 “그러하면 대성사 부처를 어찌 따라갔느뇨?”

이랑이 대소 왈 “내 과연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 요지에 다녀왔거니와 할미 어찌 내 몽사를 아느뇨?”

할미 왈 “공자가 나를 업신여기거니와 나는 요지를 지척같이 다니니 모르는 것이 없는지라. 상제 주시던 반도와 계화를 어디 두었느뇨?”

이랑 왈 “꿈이 다 허사이니 아무 것도 모르노라.”

할미 왈 “그 일은 꿈이거니와 조적에게 산 족자도 꿈이니이까?”

이랑이 더욱 황홀하여 그제야 전후 사연을 다 이르고 물어 왈 “소아가 인간에 내려왔다 아니 할미를 보아 족자 난 곳을 알아 소아를 찾고저 하노라.”

할미 왈 “소아 있는 곳을 알거니와, 공자는 소아를 찾아 무엇 하려뇨?”

이랑 왈 “소아는 나의 천정배필이매 부디 찾으려 하노라.”

할미 왈 “배필을 삼으려 하거든 아예 찾을 생각을 말으소서.”

이랑 왈 “그 어인 말이뇨?”

할미 왈 “낭군은 상서덕 귀공자라, 제왕가 부마 아니면 재상이 서랑이 되리니 어찌 소아의 배필이 되리요?”

이랑 왈 “소아는 무슨 허물이 있뇨?”

할미 왈 “소아는 천상 죄가 중하여 인간에 내려와 천인의 자식이 되어, 오세에 난중에 부모를 잃고 정처없이 다니다가 도적을 만나 환도에 맞아 한 팔이 없어지고, 명사계 성황당을 덧내어 귀먹고, 표진강에 빠졌을 때 행인이 구하여내니 안정이 흐려 보지 못하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 한 다리를 불에 데어 저니 입만 남은 병신이라. 어찌 배필을 삼으리요?”

이랑 왈 “비록 병신이나 전생 연분이 중하니 다만 소아만 찾고저 하노라.”

할미 왈 “낭군은 지성으로 찾으나 그런 병인을 상서께서 떠드리로 삼을 리 없을 것이니 부질없이 찾지 마소서.”

이랑 왈 “부모가 아무리 금하여도 나는 맹세코 소아가 아니면 취처치 아니하리니 할미는 잔말말고 가르치라.”

할미 왈 “나는 소아를 떠난 지 오래니 있는 곳을 자세히 모르거니와 굳이 찾으려 하거든 남군 장승상 집에 가 찾되 근본은 남양 김전의 딸 속향이니이다.”

13. 이선이 숙향을 찾아나서다

이랑이 즉시 돌아가 부모께 고하되, “형초 땅에 문인들과 재사가 많다 하오니 구경코저 하나이다” 하고 행려를 차려 황금백냥을 가지고 필마 서동으로 행하여 남양 김전의 집을 찾아갔다.

백발노옹이 나와 물어 왈 “공자는 어디 계시며 누구를 찾느냐?”

이랑 왈 “나는 낙양 이위공 자제러니, 이 집 주인을 보러 왔노라.”

노옹 왈 “김상서는 소복의 주인이라. 대노야는 운수선생이니 공명에 뜻이 없이 산림에 처하였더니 저번에 황제 특지로 현인자손을 중용하라 하시므로 소상공이 지금 낙양 태수로 계시니이다.”

이랑 왈 “이 집 남자의 이름이 숙향이라 하느냐?”

노옹 왈 “숙향자는 소주인의 딸이러니 오세에 난중에서 잃은 후 지금 사생을 모르나이다.”

이랑이 듣고서 낙담하여 즉시 남군 장승상 집을 찾아가 통[전갈]하였더니 승상이 청견하였다.

가로되, “그대는 어디 있는 사람이냐?”

이랑이 왈 “소자는 낙양 이위공의 아자[아들]러니, 남양 김전의 딸 숙향이 존택에 있다기로 천정가연을 맺고저 하여 찾아왔나이다.”

승상이 흐느껴 눈물을 흘리며 왈 “과연 숙향이란 아이를 오

세에 무슨 짐승이 엮어다가 동산에 두고 갔는지라. 그 정경도 가련하고 겸하여 노인이 자식이 없기로 거두어 십년 양육하여 극진히 사랑하였더니 내 집 종년 사향의 무함을 받아 쫓겨남을 입어 표진강에 빠져 죽었다 하매 지금 존망을 모르노라.”

이랑 왈 “정녕히 알고 왔사오니 기이치[숨기지] 마소서.”

승상 왈 “나의 기출[친자식]이라도 위공과 인천[혼인하여 친척이 됨]하기를 원하려든 어찌 은휘[가리고 숨김]하리요?”

이랑 왈 “듣자오니 그 여자 수족을 못쓴다 하오니 비록 구박한들 어찌 멀리 가기 쉽사오리이까?”

승상 왈 “늙은 처가 속향을 잃고 슬퍼하기를 지나치게 하기로 위로할 길이 없어 민망하여 할 차에 그 아이 화상을 그려간 사람이 이왕 있는지라. 중가를 주고 사서 부인을 위로하노라.” 하고 그 족자를 내어오니, 과연 한 계집아이가 모란꽃을 들고 섰는지라.

생이 익도록 보다가 가로되, “이 화본을 보니 병신이 아니어 늘 들은 말과 다르도소이다. 이 여자를 위하여 수천 리를 헛되이 돌아가기가 험 험하오니 화상을 팔으심을 청하나이다.”

승상 왈 “부인이 일시도 손밖에 내지 아니하니 사세 난처하다.”

이랑 왈 “승상 말씀이 진정이오니 어찌 역지로 청하리이까?” 하고

하직하고 표진강에 나와 지향없이 두루 찾으나 아는 이 없더라.

한 노옹이 이르되 연전에 어떠한 계집아이 장승상 집에서

나와 이 물에 빠져 죽었음에 틀림없다 하거늘,

이랑이 창연함을 이기지 못하여 향촉을 갖추어 물가에서 제 하더라.

문득 청의동자가 피리를 불며 이랑의 앞에 와 배를 매고 이랑에게 이르되 “숙향을 보려 하거든 이 배에 오르라” 하니 이랑이 배에 올라 가다가 한 곳에 다다라서는 동자가 말하기를, “이 물 지키는 신령이 나에게 이르되 저 즘음께 숙향이 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구하여 동쪽으로 가게 하였노라 하였던 것이니, 그 쪽으로 가서 찾으라.”

이랑이 사례하고 동쪽으로 가다가 한 중을 만나 길을 물었더니 중이 왈 “이 앞길에 노감투[노끈으로 끈 감투] 쓴 노옹이 있을 것이니 네가 지성으로 물어라.”

이랑이 갈대 속으로 갔더니 과연 한 노옹이 소나무 아래 앉아 졸고 있었다. 이랑이 나아가 재배한대 노옹이 보고도 못본 척하고 자거늘, 이랑이 민망하여 소리를 질러 왈 “길을 묻나이다.”

노옹이 그제야 눈을 들어 보고 이르되 “내가 귀 먹었으니 소리를 크게 하여라.”

이랑 왈 “소자는 낙양 이위공의 아자 선이러니, 숙향의 거처를 알고저 하나이다.”

노옹이 얼굴을 찡그리고 이르되 “너는 어찌 깊은 갈대밭에 들어와 늪은이 잠을 깨우느냐?”

이랑이 다시 절하여 가로되 “표진강 신령이 이리로 가라 하기로 왔나니 노장[어르신]은 숙향이 있는 곳을 가르치소서.”

노옹 왈 “저번적에 어떤 여자가 표진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

을 들었더니, 표진 용왕이 그대 제물을 먹고 핑계할 데가 없어 내게로 지시하였도다.”

생이 왈 “숙향이 표진 용왕의 구함을 입어 이 길로 왔다 하더이다.”

노옹 왈 “그렇다면 여기 와서 불타죽은 여자로다. 보려거든 저 재 무덤이나 보고 가라.”

이랑이 그 재를 헤쳐보니 의복 탄 것뿐이거늘, 다시 와서 그 대로 고하니 노옹이 졸다가 이르되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생이 종일토록 부비더라. 노옹이 깨어나 가로되 “그대를 위하여 사해로 다니되 보지 못하여 후토부인께 물으니 마고할미가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 산다 하기에 거기를 가보니 과연 숙향이 누상에서 수를 놓고 있거늘, 보고 온 일을 표시하려고 하여 불덩이를 내리쳐 수놓은 봉의 날개를 태우고 왔으니, 그대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의 종적을 묻되, 그 수를 보아 불탄 데를 이르라.”

이랑 왈 “처음에 가서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까지 갔다가 이리로 왔는지라. 낙양 동촌에 있을진댄 그토록 숨겼으리요?”

노옹이 웃으며 왈 “마고선녀는 범인[보통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 가서 애걸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가 아시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하고 이미 간 데 없더라.

이랑이 집으로 돌아왔다.

14. 이선이 속향을 찾아 혼인하다

먼저번에 할미가 이랑을 속여 보내고 들어와 남자에게 이르되 “아까 그 소년을 보셨나이까? 이는 천상 태을이요 인간 이선이니이다.”

남자가 왈 “태을인 줄 어찌 아느냐?”

할미 왈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가 반도를 받고 조적의 수 족자를 샀노라 하니 태을일시 분명 하더이다.”

남자 왈 “세상사 측량하기 어려우니 옥지환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피소서.”

할미 왈 “그 말이 옳다” 하더라.

하루는 남자가 누상에서 수를 놓더니, 문득 난데없는 불뚱이 떨어져 수놓은 봉의 날개끝이 났는지라. 남자가 놀라 할미에게 보이니 할미 왈 “이는 화덕진군의 조화이니 자연히 알 일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때에 이랑이 목욕제계하고 황금 일정[한 덩어리]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할미 맞아 가로되 “저번에 취한 술이 옛그제야 깨어서 해장코자 하였는데 오늘 공자를 만나니 다행 하여이다.”

이랑 왈 “할미 술을 많이 먹고 주체를 갚지 못하였기에 금전 일정을 가져와 정을 표하노라.”

할미 왈 “주시는 것은 받거니와, 내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위에 주성[酒星]이 비취고 밑에 주천[酒泉]이 있으니 우주영준

[좋은 술과 빼어난 술잔]이라, 어찌 값을 의논하리요? 그러니 무슨 일로 수천 리를 왕래하였느냐?”

이랑이 탄식하여 왈 “할미 말을 곧이듣고 속향을 찾으러 갔노라.”

할미 왈 “낭군은 진정 신사로다. 그런 병인을 위하여 그렇듯이 수고하니 속향이 알면 자못 감사하리로다.”

이랑 왈 “헛수고를 뉘 알리요?”

할미 거짓 놀라 가로되 “속향이 죽었더니이까?”

이랑 왈 “노전에 가 노옹의 말을 들으니 낙양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있다 하니 분명 할미 집이 아니면 어디 또 있느냐? 사람을 속임이 너무 심하도다.”

할미가 정색하여 왈 “낭군의 말이 매우 허탄하도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바 없거늘 속향을 데려갔단 말이 더욱 황당하도다.”

이랑 왈 “화덕진군이 이르되 속향이 수 놓는 데 불뚱을 내리쳐 봉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징간[징험하여 가림]하라 하니 그 노옹이 어찌 나를 속이리요?”

할미 왈 “실로 그러하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하도다.”

이랑 왈 “방장 봉래를 다 돌아 속향을 찾아낸다면 이선이 또한 죽으리로다” 하고 술도 아니 먹고 일어나거늘,

할미가 웃으며 왈 “숙녀를 취하여 동락할 것이거늘 구태여 병든 걸인을 괴로이 찾느냐?”

이랑 왈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 일을 알진대 어찌 속향을 생각지 아니하리요?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

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할미 왈 “내 아무쪼록 찾아 기별할 것이니 과려치 마소서.”

이랑 왈 “내 명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히 여김을 바라노라.”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소식을 고대하더라.

삼일 후에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거늘 생이 기꺼이 맞아 서당에 앉히고 문 왈 “할미 어찌 오늘 찾았느냐?”

할미 왈 “낭군을 위하여 숙낭자를 찾으러 다니니 숙향이란 이름이 세 곳이 있되, 하나는 태후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시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라. 세 곳에 기별한즉 두 곳은 응답하나 걸인은 허락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랑이 대희하여 왈 “필시 요지에 갔을 적 반도 주던 선녀로다. 수고로이 이 진주를 가져다가 보이라.” 하고 주찬으로 후하게 대접하니

할미가 응락하고 돌아가 낭자에게 이생의 말을 이르고 진주를 내어 주거늘 낭자가 보고 옳다 하니,

할미가 웃고 즉시 이랑에게 가 이르되 “진주가 걸인의 것이 분명하기로 데려다가 집에 두었으나 얼굴이 추비하고 몸쓸 병이 여러 가지니 낭군은 알아서 하소서.”

이랑이 왈 “할미는 부질없이 말을 말라. 그 병이 나로 말미암아 난 병이니 어찌 박대하리요?”

할미 왈 “그러나 낭군이 마땅히 육례로 맞지 아니하면 허락지 아니하리이다.”

이랑 왈 “다시 이르지 말라.”

할미 왈 “그러하면 부모가 아시나니이까?”

이랑 왈 “부모 엄하시니 고하지 못하였고 고모께 고하여 주
혼하시리니 그리 알라.”

할미 왈 “납채는 금월 십사일이요 전안은 십오일이 길하니
이다.”

이랑이 황금 백냥을 주며 혼수에 보태라 하거늘 할미 왈 혼
인은 칭가지유[집안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따져본다는 말] 무
관하다 하고 받지 아니하더라.

원래 이랑의 고모는 복야 여흥의 부인이라. 일찍 과부가 되
어 자녀가 없으므로 선을 양육하여 기출같이 하더니, 하루는
부인이 생에게 이르되, “내 간밤 꿈속에 옥교를 타고 광한전에
들어가니 한 선녀가 이르되 ‘내 사랑하던 소아로 그대를 주나
니 며느리로 삼으라’ 하매 내 너를 생각하고 그 여자를 데려와
보이니 네가 틀림없이 숙녀를 취할까 하노라.”

이랑이 기꺼워하여 드디어 자기 꿈일과 한미 전후사를 고하
니 부인 왈 “이 일이 매우 이상하니 네 부친 심도가 지엄하나
내가 스스로 감당하리라.”

생이 대희하여 혼기를 고하였다. 부인이 왈 “네 부친이 예법
을 숭상하여 자전하는 바 없으니 너의 불고이취[부모에게 고
하지 않고 처를 얻음]하는 줄을 알면 반드시 죄책이 중하리니
너는 집에 가 있다가 그 날을 당하거든 내 집에 와 차려가되
혼구는 내가 준비하리라.”

생이 기꺼워하여 본부에 돌아왔다가 당일 여부에 가서 길복

을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할미 또한 위의를 성비하여 이랑을 맞을새 포진과 기용범절이 인간에서 못 보던 바라.

생이 전안지례를 마치고 동방화촉에 양인이 합근[뿌리를 합함; 혼인하여 동침함을 가리키는 말]할새 생이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남자의 요조선연한 태도가 요지에서 보던 선녀와 일호도 다름이 없으매, 견권지정[굳게 맺어 잊혀지지 않는 정]이 더욱 비할 데 없더라.

삼일 후에 돌아와 고모께 뵈온대, 부인 왈 “신부를 보고싶으되 네 부친이 내려오거든 친히 사연을 설파한 후 데려다가 보고저 하노라.”

생이 왈 “신부를 보려 하시거든 족자를 보소서.” 하고 드리니 부인이 보고 대희 왈 “진정 몽중에 보던 소아로다” 하더라.

15. 혼인으로 인하여 숙향이 고초를 당하다

이 적에 상서는 국사에 매여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상서의 부인이 생의 거지가 수상함을 보고 노복들에게 힐문하니 노복들이 부득이 이실직고한대 부인이 대경하여 즉시 상서께 기별하니, 상서가 또한 통분하나 누이[저저]가 주혼하고 선이 흑애한다 하니 달리 금하지 못하리라 하고, 낙양태수에게 기별하되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숙향이란 계집이 매우 요악하다 하니 잡아다가 죽이라’ 하였다. 이생은 여부에 있어 망연히 알지 못하더라.

이 때에 낙양 태수 김전이 위공의 말을 듣고 즉시 관차를 놓아 속향을 잡아오니 속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 관전에 이르니라.

태수가 물어 왈 “네가 어떤 창녀관대 위공댁 공자를 고혹하게 하였는가? 그리하여 처죽이라 기별이 왔으니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사예를 호령하여 형주하는데,

남자가 원정하되, “소녀가 오세에 난중에 부모를 잃고 동서지걸하다가 할미 집에 의지하였더니 이랑이 병례로 구혼하오매 상하 체면을 거스르지 못하여 성혼하였사오니, 첩의 죄는 아니로소이다.”

태수가 이르되 “나는 상서의 기별대로 하노라” 하고 치기를 재촉하며, 속향의 화월같은 용모에 운환을 허트르고 눈물이 망망하여 슬피 우니 그 경상을 차마 못 보겠더라.

집장 사령이 매를 들어 치려 한즉 팔이 무거워 들지 못하므로 태수가 대로하여 다른 사령을 가려 치려하되 또한 매 끝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더라. 태수가 괴이히 여겨 왈 “필시 애매한 사람이나 상서의 기별이매 마지 못함이라” 하고 동여뒀어 물에 넣으려 하였다.

이 때에 부인 장씨 꿈에 속향이 앞에 와 울며 가로되 “부친이 나를 죽이려 하거늘 모친이 어찌 구해주지 아니하시느냐?”

부인이 놀라 깨어 시비에게 상공이 무슨 좌기[지방관의 공무를 하시는가] 알아오라 하니, 시비가 회보하여 왈 “상공이 이상서 칙령으로 그 댁 며느리를 죽이려 하시더이다.”

장씨 놀라 바빠 태수를 청하여 가로되 “여아를 잃은 지 십여

년에 한 번도 꿈에 보이는 일이 없더니 아까 몽중에 속향이 울며 여차여차 하오니 매우 괴이한지라. 금일 좌기는 무슨 일이니까?”

태수가 왈 “이위공의 아들이 속향에게 고혹하여 부모를 속이고 장가들었으므로 내게 기별하여 죽이라 하였기로 좌기하나다.”

장씨 왈 “몽사가 괴이하고 난중에 부모를 잃었다 하니 그 근맥을 물어보겠사오니 아직 정지하소서.”

남자 섬섬약질에 큰칼을 쓰고 눈물이 만면하여 옥에 들어가며 문 왈 “이곳이 어디뇨?”

옥졸이 답하여 왈 “낙양 옥중이라. 내일은 죽을 것이니 자닝하다.[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기 어렵다]” 하거늘,

남자가 생각하되 ‘이랑이 나의 죽는 줄을 모를지니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하고 애통하더니, 날이 밝으며 문득 청조가 날아와 울거늘 남자가 적삼 소매를 찢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편지를 써 발목에 매며 이랑께 전하라 경계하니, 청조가 두 번 울고 날아가니라.

이 날 이랑이 여부에서 자더라. 문득 부인이 대경대로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아자나 내 또한 길렀으며 주훈함이러니 내게 묻지 않고 이렇듯 무류[무례한 행사]를 끼치리요?” 하거늘, 생이 부인을 흔들여 깨우니 부인이 정신을 차려 생에게 몽사를 이를 즈음에, 문득 청조가 날아와 이랑의 앞에 앉거늘 자세히 보니 발목에 한 봉 글이 매였는지라.

끌러보니 하였으되,

박명한 첩 속향은 삼가 글월을 이랑 좌하에 올리
나니, 첩이 전생의 죄를 차생에 피하지 못하여 속
절없이 낙양 옥중에 흠이 되니, 죽기는 싫지 아니
하나 낭군을 다시 못 보니 지하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рода. 복원, 낭군은 천첩을 생각지 말고 천금
귀체를 보증하소서.

하였더라.

이랑이 보기를 마치고 대경하여 그 글을 부인에게 드리고 낙
양 옥중에 가 함께 죽고저 하니, 부인이 왈 “내 몽사와 같으니
장차 어찌 하리요? 그러나 경조히 굴지 말고 할미 집에 사람
을 보내어 자세히 알아 오라.” 하며 일변으로 상서 집 노복을
불러 물으니, 노복 등이 대답하여 왈 “부인이 알으시고 상서께
기별하여 여차여차 하여이다.” 하였다.

부인이 대로하여 왈 “내가 주혼함을 없이 여겨 불문곡직하
고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도다. 내 친히 경성에 가 상서를
보아 결단하리라.” 하고 치행하여 경성으로 가니라.

이 때에 태수가 내청 좌기를 차리고 속향을 올려 거주 성명과
연기 부모를 물은대, 속향이 정신을 수습하여 가로되 “오세에
부모를 잃고 유리표박하오니 거주와 부모 성명은 모르옵고 이
름은 속향이요 나이는 십육이니다.”

장씨 듣고 실성 유체 왈 “저 아이의 얼굴이 죽은 딸과 같고
이름이 또한 같은데 다만 근본이 자세치 아니하니 아직 죽이지
말고 이상서께 기별하여 다시 처치케 하소서.”

태수가 옳게 여겨 다시 가둘새 부인이 상서께 청하여 씩은

칼을 벗기고 시비로 음식을 자주 내어보내고 이후로 속향을 생각함이 더욱 간절하더라.

이 날 태수가 이위공께 속향을 치죄하던 연유를 기별하니 위공이 대로하여 김전을 갈고 유도[留都:중양에서 파견된 임시직 지방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인명으로 쓰였다.]를 보내어 쳐죽이려 하더니,

문득 여부인이 오신다 하거늘, 상서가 놀라 급히 맞아 좌정하매,

부인이 노한 기색이 등등하여 이르되 “요새는 관직이 높고 위엄이 중하면 뒷사람도 모르고 동기라도 멸시하느냐?”

상서가 황공 대 왈 “이 어인 말씀이시니이까?”

부인 왈 “나는 그대와 함께 우촌[말을 나눌 만한 사이]에 참여치 못하느냐?”

상서가 더욱 송연하여 왈 “형우제공[형은 사랑하고 동생은 공경한다]이라,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부인 왈 “그런즉 그대는 어찌 나를 지나는 사람으로 아느냐?”

상서 왈 “청컨대 명정기죄[그 죄를 명백히 밝힘]하사 안전에서 다스리소서.”

부인이 책망하여 말하기를 “선이 비록 그대의 자식이나 나 또한 자식같이 양육하여 내 자식이나 다를 바 없다. 내 일찌기 생각하기를 선이 다른 날 입신하면 두 아내를 둘 것이니 내가 먼저 주혼하고 후처는 그대가 주장함이 좋을 듯하기로 그리 하였더니, 나를 안중에 없이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 그런

도리가 있느냐?”

상서가 침음하면서 대답하여 왈 “소제가 그런 줄 모르고 제 임의로 함을 통한히 여겨 그리한 일로소이다.”

부인 왈 “부부는 하늘이 정하는 바라.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용서하라.”

상서가 내심에 불평하나 거스르지 못하여 대답하여 왈 “명대로 하리이다” 하고, 낙양 태수를 보고 그 사연을 일러 죽이지는 말고 멀리 쫓으라 하니라.

이공이 아자의 한 짓을 통회하여 경성으로 데려가니 생이 남자를 못 보고 갈새, 모친께 하직하되 부인이 왈 “범사에 마음을 써 다시 그림이 없게 하라.”

선이 비로소 전후 곡절을 고하니 부인 왈 “네 말 같을진대 천정연분이니 네 아직 방심 말고 학업에 힘쓰라.”

생이 명을 받들고 하직한 후 남자를 못 찾아보고 마음이 울적하여 할미에게 글을 남기고 가니라.

경사에 이르러 상서가 크게 책망하여 왈 “혼인은 인륜대사라. 부모를 모르게 임의로 하였으니 이 큰 죄로되, 누이가 만류하시므로 용서하나니, 네 등과 전에는 대면하지 않으리라.” 하고 태학으로 보내고 상서는 공사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차시에 김전은 계양 태수로 이직하고 신관이 도임하여 남자를 풀어주면서 근처에 있지 말라 하였다.

할미가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생이 보낸 글이 있거늘, 남자가 탄식하여 왈 “이 땅에 있지 못하고 또 이랑은 경사로 갔으니 장차 어찌 하리요?”

할미 왈 “이곳에 있어서는 또 환란을 보리라.” 하고 집을 옮겼다.

16. 마고선녀와 이별하다

하루는 할미 왈 “나는 천태산 마고선녀로서 남자를 위하여 내려왔더니 이제 연분이 다하여 떠나게 되니 섭섭함이 비할 데 없나이다.”

남자 이 말을 듣고 대경 왈 “인간 육안이 어찌 선인을 알리요? 내 전생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의지없는 인생을 거두어 일생을 제도하매, 나의 바람이 부모와 다름이 없더니, 이제 가는 듯이 버리려 하니 누구를 의지하리요?”

할미 왈 “남자의 지난 액은 이미 면치 못할 바요, 앞으로 올 일은 태평하리니 근심치 마소서. 내 청삽사리를 두고 가니 어려운 일을 능히 주선하리이다.”

남자 왈 “함께 가고저 하나이다.”

할미가 장탄식하고 왈 “그러할 터이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가리오마는, 하늘이 정하신 바라 머물지 못하나니 나의 입던 옷함을 빈림하고 저 개를 따라가 흔드는 곳에 묻고 혹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 분묘로 오소서.”

입던 적삼을 벗어주고 두어 걸음에 부지거쳐[간 곳을 모름]라.

남자가 적삼을 붙들고 통곡하며 옷함을 빈림하여 영장할새,

남자가 친히 가려 하나 삽사리가 남자의 치마를 물어 앉히니, 남자가 역군에게 일러 개를 데리고 가 흔드는 곳에 묻으라 하니 역군이 응답하고 개를 따라 가니 북촌 이상서 집 동산 서편 언덕이라. 그곳에 영장하고 돌아오니라.

남자가 왈 “할미 죽어도 나를 잊지 못하여 낭군의 집 가까이 에 묻혔도다.” 하고 조석 제전을 극진히 하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추칠월 망간이 되매 양풍이 소슬하고 명월은 조요한지라.

화전을 펴고 글을 지어 읊다가 서안에 의지하여 졸더니 깨어 보니 삽사리 간 데 없거늘 놀라 찾으나 종적이 없는지라. 더욱 망연하여 신세를 한탄하더라.

이 때 이랑이 태학에 있어 남자의 소식을 모르더니 하루는 삽사리가 오거늘 반갑고 놀라 내리달아 어루만질새 그 개 문득 한 봉 글을 토하니 이는 곧 남자의 필적이라. 급히 떼어본즉 하였으되,

숙향의 팔자가 기험할새 오세에 부모를 잃고 동서 유리하다가 천정연분으로 이랑을 만나 원앙금이 완전치 못하여 이별이 무슨 일인고. 간장은 끊어져 상봉이 길이 없도다. 할미마저 없어지니 누구를 의지하잔 말인고. 알지 못하리로다, 나의 궁박함을 뉘 알리오.

하였거늘, 이랑이 글을 보고 더욱 슬퍼하여 음식을 내어 개를 먹이며 편지를 써 개 목에 걸어 경계하여 왈 “할미 죽었으니

너는 남자를 보호하라” 하니 그 개 머리를 조아려 응하고 가니라.

화설, 남자가 개를 마저 잃고 홀로 있어 사면이 적료하매, 슬픔을 금치 못하여 자결코저 하여, 깃수건을 손에 쥐고 창천을 의지하여 부모를 부르짖어 통곡하다가, 문득 들으니 무슨 짐승이 소리를 크게 지르며 점점 가까이 오매 마음에 놀라 창을 닫고 동정을 살피더라. 이윽고 그 짐승이 들어와 문을 흔들거늘 자세히 들으니 이는 곧 샅사리거늘, 그제야 반겨 급히 문을 열고 나가 개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더냐 하고 슬피 우는데,

그 개 목을 늘리어 남자의 팔 위에 엮거늘 괴이히 여겨 보니 목에 한 봉 글이 매였더라. 바빠 끌러보니 이는 곧 이랑의 필적이라. 하였으되,

백년가랑 이선은 글월을 숙낭자에게 부치나니 남자의 이렇듯 괴로움이 다 생의 연고이라. 내 한 번 이리 오매 운산이 첩첩하여 청조 소식이 그쳤더니, 의외에 남자의 친필을 보니 상면한 듯 반가운 중에 할미가 죽었다 함은 나로 하여금 심신이 혼미하다. 옛말에 고진감래라 하니, 요사이 과거 소문이 들리니 요행 참방하면 평생 원을 이룰 것이니 남자는 천만 관심하여 나의 돌아감을 고대하라.

하였거늘, 남자가 보기를 마치고 일희일비하며 샅사리가 수천리를 하루만에 득달함을 기이히 여기더라.

수일 후에 울 밖에 사람이 가며 이르되, 오늘 밤 이 집에 도

적이 들 것이니 남자가 어찌 면하리요? 하거늘 남자가 놀라 망지소조하더니 삽사리가 집안 세간을 물어다가 땅에 묻는지라.

남자가 할미 말을 생각하고 할미 분묘로 갈새, 늙은 옷을 입고 새옷을 개 등에 엮고 경계하여 왈 “이제 할미 분묘에 가려 하니 너는 길을 인도하라” 한대, 삽사리가 꼬리를 치고 앞에 서서 가다가 구비구비 돌아보아 남자가 오기를 기다려 가기를 수 마장 하더니, 한 곳에 도착했다.

수목은 삼삼하고[나무가 뻑뻑함] 꽃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한 분상이 있고 개가 앞에 가 앉거늘 남자가 물어 왈 “이 분상이 진실로 할미 분상인가?” 한대 개가 몸을 떨고 혀를 내는지라.

남자가 사면을 돌아보니 성월[별과 달]은 요량[맑고 낭랑함]하고 풍경은 처량한지라. 심산궁곡[깊은 산 깊은 골짜기=심산유곡]에 인적 없이 홀로 앉았으니 드는 것이 슬픈 마음뿐인지라. 할미의 분묘를 두드리며 일장통곡하더라.

17. 속향이 이상서의 집에 들다

각설, 상서가 아자를 학관에 두고 돌아와 집안이 적료하므로 부인과 더불어 완월루에 올라 술을 먹더라.

어디서 처량한 곡성이 들리거늘, 이 심야에 어떤 계집이 우는고 알아오라 하니, 마침 이랑의 유모가 시측하였다가 우는 소리를 찾아 가니, 한 분묘 앞에 젊은 여자가 우는지라.

유모가 나아가 물어 왈 “남자는 어떤 사람이관대 이 심곡반

야[깊은 골짜기 한밤중]에 우느뇨?”

남자가 무슨 변고가 있는지 겁을 내어 들은 체하지 않으니, 유모가 재삼 묻거늘 남자가 비로소 여자인 줄 알고 울음을 그치고 전후 소이연[까닭]을 이르고 이곳에 와 죽으려 하노라 하니,

유모 왈 “남자를 뵈오니 반갑도소이다. 소인은 이랑의 유모러니 부인의 분부로 곡성을 찾아 왔삽더니 어찌 낭잔 줄 뜻하였으리오? 소인의 집이 멀지 아니하오니 그리로 가사이다.”

남자가 답하여 왈 “그대가 낭군의 유모라 하니 기쁘나 상서가 나를 죽이려 하시나니 어찌 그대에겐들 가리요?”

유모가 왈 “남자의 말씀이 옳으시니 돌아가 부인에게 고하여 회보하리이다.” 하고 가니라.

이 때 삽사리가 머리를 들어 상서 집을 향하며 구덩이를 팔 의사가 없는지라. 남자가 울며 가로되 “내 이제 있는 줄을 상서가 알면 필경 죽이려 할 것이니 내 차라리 내 먼저 스스로 죽으리라.” 하고 수건을 들어 목을 매려 하니 삽사리가 수건을 물어뜯는지라. 남자가 왈 “너는 기이한 짐승이라. 나에게 죽지 말라 하거든 분상에 올랐다가 내려와 절 세 번만 하면 네 뜻대로 하리라” 하니 삽사리가 즉시 분상에 올랐다가 내려와 절하거늘, 남자 왈 “네 비록 짐승이나 매우 비상하니 아무 것이라도 가르치는 대로 하리라.” 하더라.

차시에 유모가 부인에게 들어가 남자의 문답사를 낱낱이 고한대, 부인이 대경 왈 “내 잊었도다. 선을 낳을 때에 선녀가 이르던 말을 기록하여 두었노라.” 하고 적은 것을 가져다가 상서께 드리니라.

상서가 보니 이 아이 배필은 남영 땅 김전의 딸 속향이라 하였거늘, 상서가 또한 김전의 일을 생각하여 괴이히 여기니라.

부인이 이르되 “정녕 선의 배필이로다. 아무튼지 데려다가 근본을 알고저 하나이다.”

상서가 허락하니 부인이 유모로 교자를 가지고 데려오라 하니라.

유모가 즉시 교자를 차려 나아가 부인의 말씀을 전하고 가기를 청하니

남자 왈 “부인 명을 거역지 못하여 가려니와 천인이 어찌 방자히 교자를 타리오?” 하니 유모 등이 재삼 권유하므로 남자가 어쩔수없이 교자에 올랐다.

시녀가 등축을 잡아 인도하여 곧바로 망월루에 다달아 누상에 올라가니 상서와 부인이 나란히 앉았는지라.

남자가 나아가 재배한대 자리를 가까이 주고 상서 부부가 눈을 들어 보니, 근심을 띠었으나 찬란한 용모와, 단장을 폐하였으나 선연한 태도가 짐짓 천하국색이라. 저렇듯한 가인을 연소배가 어찌 미혹되지 않으리오 하고 돌이켜 전날 일을 후회하면서 거주와 부모를 물으니,

남자가 피석[공경의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남] 대답하여 가로되 “소첩의 명도가 기박하와 오세에 난중에서 부모를 잃었기로 부모와 거주를 모르나이다.”

상서 왈 “동촌 이화정 할미 집에는 어찌하여 왔더뇨?”

남자가 자초지종을 고할새, 장승상 집에 있다가 사향의 참소로 내쳐진 일과, 표진강에 빠져 선녀의 구함을 받은 일과,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 화덕진군에게 구하여진 일과, 이화정 할미 만나 함께 가던 일과, 여복야 집에서 통혼하던 일과, 낙양 옥중에서 고초 겪던 일과, 도적을 피하여 할미 분묘에 와 죽으려 하던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부인 왈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며, 생월생일은 어느다?”

남자가 왈 “이름은 속향이요, 나이는 십육이요, 생일시는 사월 초팔일 자시로소이다.”

부인 왈 “생월일시를 어찌 아느냐?”

남자가 왈 “부모를 떠나올 때 금낭을 채우고 갔삽기에 자란 후에 열어 보니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어넣었기로 아나이다.”

원래 김전이 왕균에게 사주를 물은즉 부모를 잃으리라 하매 후일을 염려하여 기록하여 금낭에 넣어 채워두었음이라.

부인이 금낭을 보고 크게 기뻐 왈 “생년월일이 선과 같고 이름이 또 속향이니 선녀의 말이 맞되, 다만 부모를 모르니 답답하도다.”

상서가 왈 “근본은 자연 알리라.” 하고 선이 머물던 봉룡당에 침소를 정하니라.

18. 속향이 재주로 시부모를 기쁘게 하다

익일에 부인이 남자를 불러 물어 왈 “너 있던 집에 아무것도 없느냐?”

대답하여 왈 “의복과 그릇을 땅에 묻고 왔나이다.”

부인 왈 “헌부가[네가] 아니면 누가 알리요?”

대답하여 왈 “첩이 아니라도 청삽사리가 그 곳을 아나이다.”

부인이 유부[어린 계집]에게 명하여 개를 데리고 가라 하니 유부가 개를 따라가 개 가르치는 대로 파가지고 왔거늘, 부인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짐승도 저리 기이하니 그 임자야 더욱 비상하리로다” 하더라.

하루는 부인이 낭자를 불러 물어 왈 “네 무슨 재주를 배운 것이 있느냐?”

대답하여 왈 “배운 것은 없사오나 아무 일이라도 한 번 보면 그대로 할 듯 하와이다.”

부인이 그 재주를 시험코저 하여 비단을 내어주며 이르되 “상공의 관대가 무색[색이 바램]하였으니 저 관대를 보아 그대로 지어보라” 하거늘, 낭자가 받아가지고 침소로 돌아와 비단을 보니 좋지 못한지라. 생각하기를 “내 재주를 시험하는 것이라” 하고 자기가 짜둔 비단을 내어 바꾸어 지어내니 시녀가 보고 대경하여 부인에게 고한대, 부인이 왈 “관대는 다른 옷과 달라. 내 소시적에 침자를 따를 이 없으되 수일만에 마쳤거든, 제가 어찌 하루가 못 되어 지으리오?” 하고 낭자를 부르니 낭자가 관대를 드리거늘, 부인이 보고 대경 왈 “수품제도가 천재[하늘이 낸 재주]일 뿐 아니라 비단이 내준 것이 아니로다.” 낭자가 왈 “주신 비단이 부정하기로 첩이 전일에 짠 비단으로 바꾸었나이다.”

부인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관대를 가져 상서께 드리며

가로되 “수품과 비단이 현부의 재주니 자세히 보소서.”

상서가 재삼 살펴보고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이 때에 조정에 일이 있어 사관으로 상서를 명초[임금이 부름]하시니, 상서가 응명[명에 응함]하여 명일 발행하려 할새, 흥배가 무색하니 좋은 흥배를 사오라 하거늘, 남자가 시립하였다가 물어 왈 “상공 직품이 무슨 흥배니이까?”

부인이 왈 “쌍학이라” 하니, 남자 왈 “첩이 수농기를 아옵더니 아무튼지 놓아 보리이다.” 하고 물러가 밤이 맞도록[다하도록] 수를 놓아 이튿날 아침에 부인에게 드리니, 상서와 부인이 보고 대경 왈 “천신의 재주가 아니면 어찌 이렇듯 신기하리요?” 하고 애중함이 날로 더하더라.

차설, 상서가 황성에 득달하여 천자에게 재배한대, 상이 인견하사 국사를 의논하시더니, 상서의 관대와 흥배를 보시고 물어 가로되 “경의 관대 비단은 어디서 얻었으며 흥배는 누가 놓았느냐?”

대답하여 왈 “이는 다 신의 며느리 재주로소이다.”

상이 왈 “그런즉 경의 아들이 죽었느냐?”

대답하여 왈 “살았나이다.”

상이 왈 “비단은 은하수 물결에 응하여 짚고 흥배는 짝있는 학이 청천을 향한 격이니, 경의 아들이 있으면 어찌 이렇듯 고단한 형상을 하였으리오?”

대답하여 왈 “성상 총명이 일월 같도소이다.” 하고, 선이 속향 얻은 자초지종을 아뢰니

상이 칭찬 왈 “이 여자의 정절과 지조는 고금에 드무리로다.”

하시고 상서에게 상급을 많이 하시니

성서가 사은하고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다 이르고 상급으로 받은 보물을 다 낭자에게 주니라.

19. 이선이 등과하고 돌아와 속향을 만나다

화설, 이랑이 삽사리를 보내고 속향의 생각이 무궁하여 먹어도 느낌이 없고 잠을 자도 불안하더라.

이 때에 태학관이 주달하되 “요사이 태을성이 태학에 비취오니 필연 현사가 태학에 있는가 하나이다.”

상이 들으시고 하조하사 알성시를 설과하라 하시니, 사방 선비가 구름 모이듯 하는지라.

이 때에 선이 시구[과거에 응시할 때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장옥[과장]에 나아가 현제판[과제를 거는 판]을 바라보니, 글제는 제제다사[시경 대아편에 나오는 구절. 濟濟多士文王以寧]라 하였거늘, 시지를 펼쳐놓고 일필휘지하니 문불가점[글이 아주 잘 되어 흠잡을 곳이 없음]이라.

천자가 친히 시전을 잡아 고하를 정하실새 한 장 글을 보시니 천만 중에 제일이라, 급히 비봉을 떼게 하시니 병부상서 이정의 자 선이라 하였거늘, 전두관[전언을 읽는 관리라는 의미. 전독관]이 연하여 호명하니 선이 인해 중에 헤치고 옥계에 추진[나아감]하였더니,

상이 그 현양한 풍신과 준수한 용모를 보시고 대희대찬하사

어주 삼배를 주시고 즉시 한림학사 금문직사를 제수하시니라.

학사가 사은하고 퇴조하여 여부인에게 뵈옵고, 삼일유가 후에 본부로 돌아올새,

여부인을 모시고 대성사에 이르러 큰잔치를 배설하고 여러 승들과 함께 극진히 즐기며 부처께 하직한 후,

이화정 남자의 집을 찾아가니 집은 썩밭이 되고 인적이 적막한지라. 한 번 보매 심담[심장과 담장]이 떨어져 말에서 떨어짐도 깨닫지 못하고 실성유체[정신없이 눈물을 흘림] 왈 “슬프다, 낭자여. 만단고초를 겪어 간장을 사르다가 다시 상면치 못하고 황천객이 되었던 말인가! 내 몸이 비록 귀하게 되었은들 무엇이 기쁘리오? 맹세코 불효자가 될지언정 숙낭자를 찾아 대하에 가 놀리로다.”

하고, 말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니, 수심에 싸였으니 행색이 처량한지라.

이 때에 상서 부부가 학사가 등과하여 돌아온다는 기별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중문 밖에 나와 맞아들이는데, 학사는 수색이 만면하여 기뻐하는 기색이 없거늘,

상서가 괴이히 여겨 물어 왈 “네 몸이 불편하여 수색이 있느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즐거운 기색이 미운 것이냐?”

학사가 황공 사죄하여 왈 “원로를 오래 놓여 있어 자연히 신기가 불화하여 그러하여이다.” 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니,

부인이 그 뜻을 알고 위로하여 왈 “네 뜻을 아노니 모름지기 안심하고 서서히 숙낭자를 상봉하여라.”

선이 믿지 아니하여 몸이 곤함을 칭탁하고 의관을 벗지도

아니하고 난간에 거꾸러져 누우니 부인이 낭자에게 명하여 학사를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니, 낭자가 수괴함[부끄러움]을 머금고 주취홍상[새색시 옷차림]으로 나아가 학사의 소매를 잡아 일어나기를 청하니, 학사가 눈을 들어본즉 이는 곧 오매사복[자나깨나 늘 생각함]하던 숙낭자라.

대경대희하며 반신반의하여 옥수를 잡고 가로되 “낭자의 혼이 이선을 보느냐, 이선이 꿈에 낭자를 보느냐?” 하며 여취여광[취한 듯 미친 듯]하거늘, 낭자가 또한 일희일비한 중에 돌이켜 학사의 거동이 민망하여 간하여 왈 “군자가 어찌 이렇듯 광인의 모습을 취하시뇨? 체면을 돌아보사 방심치 마소서.”

학사가 비로소 진적함[틀림없음]을 알고 급히 물어 왈 “그대 어찌 내 집에 이르러 있느냐?”

낭자가 왈 “자초지종을 서서히 들으소서.”

학사가 낭자의 손을 잡고 봉룡당으로 들어, 무릎을 맞대고 물어 왈 “학생이 요행으로 참방하매 낭자 불 마음이 급하여 오는 길에 이화정을 찾아가니 형제도 그림자도 없으므로 가슴이 막히어 그대가 정히 죽은 줄로 알고, 부모를 뵈은 후에 결단하여 그대 뒤를 따르고저 하였더니, 어찌 여기에 있을 줄을 뜻하였으리요? 지금까지 참인지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리로다.”

낭자가 왈 “이왕 지난 일은 일러도 쓸 데 없으니 오늘로부터 환락으로 지내사이다.”

하고, 학사를 권하여 함께 나와 문안하니, 상서 부부가 더욱 사랑하여 즉시 큰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옛벗을 다 청하여 삼일을 즐기고 파하였다.

차설, 학사가 벼슬이 높아지고 남자를 만나 평생의 원을 이룬 지라. 집에 들어오면 효도를 극진히 하고 조정에 나가면 충성을 다하니 명망이 사림의 으뜸일러라.

화설, 상서가 학사에게 이르되 “네 아내가 규행이 정숙하고 부덕이 온순하니 진정 숙녀이어나와, 네가 불고이취[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함]함을 타인이 시비할 것이요, 또 전일에 양왕과 정약한 바가 있으니 정녕 재촉하리라. 어찌하리요?”

학사 왈 “이 일은 어렵지 아니하오니, 소자가 좋도록 하리이다.” 하고 즉시 상경하여 숙낭자 만나던 전후곡절을 영중에 주달한대,

상이 전날 숙낭자의 이름을 들어 계신지라. 이 날 표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사 특지로 정렬부인을 봉하시니[역주: 이곳에는 정렬부인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정렬부인과 정렬부인이 혼용되고 있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렬부인으로 통일하였음.]

공경이 주하여 왈 “여자의 직첩은 지아비 벼슬로 따르옵거늘 이제 이선의 처가 먼저 일품되움은 불가하와이다.”

상이 왈 “그러하면 지아비 없는 여자는 절행이 있어도 직첩을 못 주랴?” 하시고 선을 돋우어 간의태부 문연각 학사를 하게 하시니, 만조가 뉘 아니 공경하리요?

이 때 양왕이 상서께 혼인을 재촉하니 상서가 처음에 허락한 일이라 추탁[거절]치 못하여 민망하여 하거늘, 학사가 왈 “소자가 공도로 물리칠 것이니 염려 말으소서.” 하더라.

20. 형주로 가는 길

각설, 형초 땅에 수년 한재[가뭄]로 흉황하매, 도적이 대치하여 작란이 심하거늘, 상이 근심하실새

일인이 출반하여 주하여 왈 “신이 비록 나이 어리고 재주 없사오나 형초 땅 민심을 진정하오리니 조명을 청하나이다.”

상이 보신즉 이선이라. 상이 크게 기뻐하사 즉시 형주자사 겸 도독 안찰사를 제수하시고 절월과 상방검을 주시니

자사가 숙사[사은숙배]하고 퇴조하거늘

상서가 왈 “남아가 입신양명함에 사군할 날은 많고 사친할 날은 적다 하니 떠남이 예사러니와, 너를 만리에 보내고 그리워 어찌하며, 형초의 인심이 강악하니 이로써 염려하노라.”

자사가 왈 “소자 또한 슬하를 떠날 뜻이 없사오나 국사를 피치 못하매 부득이하여 가오니 과려치 마소서.” 하고

남자를 이별하여 가로되 “학생이 임금의 명을 늦추지 못하여 먼저 가나니 부인은 뒤에 따라 오소서.”

부인 왈 “남군이 어디니이까?”

자사 왈 “남군은 형주 속현이니 가는 역로이니이다.”

부인 왈 “그런즉 역로에 은혜 값을 곳이 많으니 어찌하리요?”

자사 답하여 왈 “그대 원대로 하라” 하고 발행하니라.

이 때에 자사가 형주에 이르러 각읍을 순행하며 그 큰 자를 물리치고 어진 자를 가려 소임을 맡기며 관곡을 풀어 백성을 진휼하여 노주무애[종과 주인을 어루만짐]하니 도적이 감화하

여 향풍귀순하매

자사의 선치한다는 명성이 매우 원근에 진동하더라.

상서가 집에 돌아와 낭자에게 이르되 “이제 들으니 아자가 내려가 선치하여 도적이 향화[=귀화]하여 양민이 되었다 하니 현부는 치행하여 내려가거라.” 하거늘

부인이 명을 받고 즉시 제물을 준비하여 할미 분묘에 제를 올리더니, 버린 제물을 삽사리가 다 먹는지라. 부인이 개 등을 어루만져 가로되 “네가 아니었던들 내 벌써 이 땅의 흙이 되었을러라.” 하고 탄식하니라. 삽사리가 발로 땅을 끄적이거늘 부인이 괴이히 여겨 살펴보니 글자를 썼으되 ‘이제 연분이 다 하였기로 여기서 떨어지나니 부인은 안과하소서.’ 하였거늘, 부인이 대경하여 왈 “네 또한 내게서 고초를 겪음이 많았으므로 은혜 갚기를 매양 원하였더니 이제 나를 버리려 하니 어디로 가려 하느냐?” 삽사리가 부리로 분묘를 가리키며 두 번 절하고 서너 발걸음에 부인을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더라. 문득 구름이 사면으로 에워 드리우며 개를 옹위하여 간 데 없으니, 부인이 슬퍼 왈 “개도 하늘의 짐승이로다.” 하고 그 개 썼던 곳에 의금을 갖추어 영장하였다.

상서 양위께 하직한 후 발행할새, 하인에게 분부하되, “연로에 제할 곳이 많으니 제물을 대령하고 기명을 날날이 고하라” 하였더라.

한 곳에 다다르니 노전이라. 부인이 화덕진군을 생각하고 제문을 지어 제하더니 잔의 술이 다 없어지고 거위알 같은 구슬이

담겼는지라. 매우 괴이히 여겨 거두었다.

한 곳에 다다르니 표진으로 통하는 양진강이라. 표진으로 가려고 하면 수로도 험하고 멀기도 하거늘 부인이 매우 서운하여 방황하다가

반쯤 갔을 때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 닻줄을 끊겨 사공이 배를 건잡지 못하고 놓아버리매 서쪽으로 향하여 빠르기가 살같은지라. 배의 중인이 뉘을 잃고 엎드렸더니 이윽고 바람이 잦고 물결이 고요하거늘, 제인이 정신을 차려 살피나 어디인 줄 알지 못하더라. 또한 기갈을 이기지 못하되 땀감을 얻지 못하여 민망하여 하더니

부인이 문득 돌아보니 채련하는 선녀가 엽연주를 타고 피리를 불며 내려오거늘 자세히 보니 전날 표진강에서 보았던 선녀라. 반가와 길을 장차 묻고자 하였으나,

그 배가 나는듯이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되, “왕년 오늘에 이곳에서 숙낭자를 만났더니 금년 오늘에 숙부인을 만나도다. 반가운 마음으로 하례를 하려 하나 배 중의 속인이 번거로워 언어를 통하지 못하는도다. 화덕진군의 화주를 가지고도 배에 탄 여러 사람의 기갈을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더라.

부인은 그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보도 들도 못하는지라.

부인이 헤아리기를, 노전에서 얻은 구슬이 정녕 화주로다 하고, 쌀을 씻어 그릇에 담고 그릇 밑에 구슬을 넣으니 쌀이 절로 끓어 밥이 되는지라.

제인이 다 놀라 이르되 부인은 진정 천신이로다 하더라.

어언지간 표진강에 이르렀거늘, 사공이 놀라 가로되 “양진에서 표진이 일천오백 리요, 수로가 또한 험난하니 아무리 순풍인들 어찌 금일 아침에 출발하여 낮이 못 되어 표진에 이르리요?” 하고 신기함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회에 밝혀질 것인지라.

숙향전 권지중 종

제3장 속향전 권지하

숙향전 권지 하

숙향이 형초 지방으로 가는 길에 곳곳에서 은혜를
갚고 의부모 장승상 부부와 부모 김전 부부를 모두
만난다. 한편 이선은 매향과의 전생 인연과 얽히어
황태후의 약을 구하러 선계로 들어가는데…

21. 속향이 장승상 양위와 재회하다

차설, 부인이 이곳이 표진강이라 함을 듣고 반가워하여 급히 제물을 갖추어 표진강 용왕 부인에게 제를 올리더니

문득 수중으로부터 난데없는 구름이 일어나며 향취 진동하기를 한참을 하다가 이윽고 구름이 걷힌 곳에 제물은 간 데 없고 그릇마다 금은보패가 소복소복히 담기고 술잔에 구슬이 담겼으되 빛은 불빛이요 크기는 제비알 같은 것이라.

부인이 헤아리기를 분명코 용왕 부인이 흠향하심이 정녕하도다 하고 보패를 나누어 배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날날이 주고 물에 내리니, 이곳은 남양 땅이라.

부인이 물어 왈 “여기서 고을이 얼마나 남았으며 장승상 댁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왈 “고을은 십여 리나 되고 장승상 댁은 일 마장 [일 마장은 오리가 조금 넘는 정도]이 되나이다.”

부인 왈 “내 몸이 여러 날을 갇혀 있어 피곤하니 본읍에 기별하여 장승상 댁으로 행차를 정하라” 하니,

남군 태수가 듣고 위의를 차려 장승상 댁에서 기다리더라.

부인이 장승상 댁으로 행차할새, 금가마를 타고 허다한 시녀를 좌우에 시위하고 각색 풍악과 기치 고각[북과 피리]이 앞을

인도하여 나아가니, 그 거룩한 위의가 왕후와 같더라.

이 때 승상부인은 정렬부인이 행차를 집으로 한다 함을 듣고
대접하고자 하여 포진[잔치자리]을 영춘당에 배설하고 숙설
[잔치음식을 만듦]하여 등대하더니

정렬부인이 도착하여 가로질러 영춘당으로 들어가는지라.

승상부인이 시녀 춘향이로 전갈하여 가로되 “귀하신 분의
행차가 누추한 곳에 용립하시니 문호의 광채가 배증하오매 즉
시 나아가 뵈을 것이로되 마침 오늘이 자식의 죽은 날이기로
명일이나 나아가 뵈오려 하오니 허물치 마소서.” 하니,

정렬부인이 화답하되 “과객이 귀택에 들어 소요 기[소란을
일으킴]하오매 정히 불안하온 중에 먼저 하문하시니 지극 감
사하여이다.”

부인이 춘향에게 정렬의 용모 풍채를 물으니 춘향이 왈 “모든
시녀들이 웅위하였기에 보지 못하였삽고, 다만 그 부인이 글을
지으신 것을 시녀 들이 전승함을 들었나이다.” 하고 외우니

“하였으되,

‘영춘당의 춘경을 다시 보니 객의 심회 느끼노라.

옥계에 핀 꽃은 옛빛이로되 인사에 번복이 많더라.

슬프다! 왕년 금일 자취를 누구에게 물을쏘냐?’

하였더이다.”

부인이 그 글 뜻을 승상에게 고한대, 승상 왈 “괴이하도다.
영춘당을 처음 보면서 이렇듯이 글을 지으니 알지 못할 일이로
다.” 하더라.

이 때에 정렬부인이 야심한 후에 상[침상]에 올라 쉬다가,

상에서 내려 승상 내당에 들어가니 부인이 자신의 그림을 걸고 그 앞에 제물을 벌리고 슬피 울며 속향을 부르짖는지라. 스스로 벌려놓은 음식을 먹고 깨어나니 남가지몽이라.

고요한 밤에 곡성이 은은히 들리거늘 시녀에게 명하여 울음 소리 나는 데를 알아보라 하니, 이윽고 시녀가 회보하는 말이 자신의 몽사와 같은지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왈 “부인과 내가 한낱[사소한] 연분이 아니라. 오늘이 내가 표진강에 빠지던 날이므로 나를 위하여 제를 하시는도다.” 하더니

날이 밝고서 부인이 나오거늘 정렬이 내려가 맞으니 부인이 하례하여 왈 “귀하신 객이 누추한 집에 내림하시니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여이다.” 하고 다담[다과]을 들이니 다꿈에 보던 음식이라.

정렬이 왈 “원로에 갇혀 있었더니 몸이 가쁘기로 큰 곳에서 쉬고져 함이러니, 귀택을 번요케 하고 또 부인이 오셔서 관대하시니 지극히 감사하여이다.”

부인이 물어 왈 “부인의 연치 얼마나 하느뇨?”

정렬이 대답하여 왈 “십팔이로소이다.”

부인이 듣고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정렬이 물어 왈 “무슨 일로 슬허하시느뇨?”

부인이 답하여 왈 “우리가 전생 죄악으로 자식이 없어 슬하가 적막함을 한하다가 늦게야 한 딸을 수양하여 마음을 위로하였는데, 왕년 금일이 죽은 날이기로 밤에 제를 지내고, 또 부인 연세가 딸과 동갑이니 자연 슬허하나이다.” 하고 다정히 말씀할새,

문득 문밖에 까치가 와서 울거늘, 정렬이 탄식하여 왈 “전에 까치가 와서 울어 애매한 속향으로 악명을 입혀 죽이더니, 오늘은 누구를 죽이려고 우는고?” 하니

장부인이 이 말을 듣고 놀라 물어 왈 “부인이 어찌 속향의 일을 아느냐?”

정렬이 왈 “한 사람이 수족자를 팔기에 속향의 일을 대강 아나이다.”

장부인이 왈 “그 족자를 가져오셨나이까?”

정렬이 시비에게 명하여 족자를 드리니 장부인이 받아보니, 한 짐승이 속향을 업어다가 장승상 집 동산에 두는 형상과, 부인이 안고 들어가던 거동과, 영춘당에서 잔치할 때 저녁까지 울던 모양과, 사향의 구박에 내쳐짐을 당하여 표진에 빠지던 형상을 충분히 그렸는지라.

한번 봄에 슬픔을 금치 못하거늘 정렬이 왈 “우연히 한 말씀으로 저렇듯이 하시니 도리어 불안하여이다.”

부인 왈, “이왕사를 넉넉히 아시니 어찌 은휘할 바가 있으리요?” 하고 속향을 기르던 자초지종과 추후 죽은 줄로 알고 주야로 슬퍼하매 승상이 염려하여 화상을 구하던 일을 낱낱이 설파하니

정렬이 왈 “비록 기출이라도 이미 죽었으면 할수없거늘 어찌 남의 자식을 저대도록[저토록] 하시리요? 속향의 혼백이라도 반드시 감격하리로소이다.”

부인 왈 “이제 이 족자를 보니 저를 대한 듯 반갑기 측량없는지라. 족자를 팔고 가시면 좋을까 하나이다.”

정렬이 왈 “족자를 드리고 싶으오나 다만 자사께서 사랑하여 중가를 주고 샀사오니 이제 중가를 주시면 팔고 가리이다.”

부인 왈, “숙향이 자라거든 주려고 황금 만 냥과 전답 수천 석지기와 노비 수백 구를 두었더니 숙향이 이미 죽은지라 쓸데 없사오니, 다 드릴 것이니 팔으소서.” 하니

정렬이 허락하고 숙향의 화상을 구경함을 청하거늘, 부인 왈 “나의 침실에 걸었사오니 비록 누추하오나 들어가 보시리이까?”

정렬이 부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과연 자신의 아릿적 얼굴을 그려 걸었으되 청장[푸른 휘장]을 드리우고 그 앞에 상탁을 놓았는지라.

정렬이 보고 웃어 가로되 “부인이 숙향을 잊지 못하심은 저 얼굴을 잊지 못하심이라. 첩이 비록 곱지 못하나 숙향과 어떠한지 자세히 보소서.” 하고 휘장을 걷고 화관을 벗고 곁에 들어서니

모두 보고 놀라 이르되, “숙향 아씨가 변하여 부인이 되신 것인가, 부인이 변하여 숙향 아씨가 되신 것인가?” 하는데 부인도 황홀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녀을 잃고 목인[나무로 만든 장승]같이 섰거늘

정렬이 그제야 나아가 절하고 사죄하여 가로되 “부인이 소녀를 모르나니이까?” 하며 전일 있던 방을 가리켜 이르되 “벽상의 혈서를 보셨나니이까?” 하니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식하며 반향[묵묵반향: 한참동안 말이 없음] 후에 정신을 차려 정렬을 안고 구르며 가로되 “어

와, 내 딸이여!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나는 너를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오늘날 이게 어인 일인고?” 하고

승상께 통하니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전지도지하며[엎드러지고 굽드러지며] 들어와 정렬을 붙들고 일희일비하여 억음유제[울먹이며 눈물을 흘림] 왈, “우리는 네가 살아 있어 이리 귀하게 됨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바라. 금일 만남이 진정한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리로다.”

정렬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왈 “소녀가 생각없어 양위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그 죄 만사무석[무엇으로도 갚지 못함]이로소이다.” 하고

시녀에게 명하여 승상 양위 입으실 의복을 드리고 즉시 낙봉연[부인들이 모이는 잔치]을 배설하여 원근 제부인을 청하여 삼일을 즐길새,

포진기구[잔치에 쓸 그릇]와 음식범절을 지방관이 대령하니, 제부인이 칭찬하여 왈 “승상 양위 비록 무자하시나 금일로 볼진댄 열 자식을 부러워함이 있으리요?” 하더라.

정렬이 승상 집에서 일삭[한 달]을 머물러 전후 고락하던 일을 설화하며 서로 즐기더니, 갈 길을 생각하여 마지못하고 하직을 고하여 가로되, “형주가 불원하온지라 위의를 차려 보낼 것이니 형주 구경이나 하시고 오소서.” 하고 금은보화를 드리며 노복 등에게 후히 상급한 후 즉시 발행하였다.

장사 땅에 이르러서, 한 뭇골에 사슴과 원숭이 황새 까치 등이 지저귀거늘, 정렬이 전날 일을 깨달아 즉시 노상에 막차[장막]를 베풀고 본읍에 기별하여 쌀 한 섬을 가져다가 밥을

짓고 소를 잡아 길가에 벌여놓고 부인이 친히 나아가 경을 게 하니 모든 짐승이 일시에 달려들어 밥과 고기를 먹고 마치 아는 듯이 돌아보며 가거늘,

부인이 탄식하여 왈 “나를 구하던 은덕을 거의 다 갚았으되, 다만 부모를 찾지 못하였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으리요?” 하더니

하인들이 이르는 말이 이곳이 계양이라 하거늘, 부인이 대희하여 왈 “할미를 이별할 제 계양 태수가 나의 부모라 하더니, 이제야 부모를 찾으리로다.” 하고 심중에 매우 기꺼워하더라.

고을 지경에 다달아 태수의 성명을 알아보니 유도라 하거늘, 부인이 대경하여 그 곡절을 물으니 하리[下吏. 벼슬아치]가 대답하기를 “김전은 양양 태수로 옮겨다 하나이다.”

“여기서 양양이 얼마나 하며 형주로 가는 길이나?”

대답하여 왈 “여기서 거리가 삼백 리요 형주 역로[가는 길]가 아니로소이다.”

부인이 생각하되 순로가 아니니 어찌하리요? 하고 헤아려 생각하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22. 속향이 부모를 다시 만난다

차설, 김전이 계양 태수로 있을 때 이선이 자사로 내려와 각읍을 순찰하여 김전이 선치함을 듣고 양양 태수로 돌우니 양양은 형주 버금이었다.

김전이 자사를 만나보고 오던 길에 반하수에 다다랐을 때, 한 노옹이 바위 위에 앉아 안연히[침착하게] 움직이지 않거늘 모든 종자들이 노하여 잡아 내리고저 하는데, 김전이 노옹의 기상 비범함을 보고 하인들을 물리치고 말에서 내려 나아가 읍하되, 노옹이 시이불견[본척도 앎]하고 더욱 거만한지라.

김전이 괴이히 여겨 헤아리되, “내가 삼천 철기를 거느렸으니 아무라도 두려워하거든 저 노인은 더욱 교만하니 정녕 신인이로라.” 하고 나아가 절하니,

노옹이 더욱 거오하여 발을 사려 다리 위에 얹고 팔을 빼며 소리쳐 이르되 “네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 절은 무슨 일일꼬?”

김전이 더욱 수상히 여겨 공경재배 왈 “지나다가 노장[어르신]의 나이를 대접하여 절을 하였나이다.”

노옹 왈 “네 사위 형주자사의 덕으로 벼슬을 올려받아 나릿님이 되었다고 어른을 업신여기면서 당돌히 나와 무슨 말을 듣고저 하느냐?”

김전이 왈 “내 본디 자녀가 없거늘 사위 덕에 벼슬이라는 말씀은 도리어 욕이 되는 말로소이다.”

노옹이 노하여 왈 “네가 만일 자녀가 없을진댄, 네 딸 속향은 하늘로 좇아 내렸느냐 땅을 좇아 나왔느냐?”

김전이 속향 두 자를 듣고 놀라 다시 절하여 가로되 “소자가 실례하였사오니 죄를 사하소서.” 하니 노옹이 노색을 푸는지라.

김전 왈, “전생의 죄가 중하여 늦게야 비로소 속향을 낳았

더니 난중에 잃은 후로 생사를 모르는지라. 노장은 숙향의 거처를 아시나 보오니 이 무지한 인사를 책망치 마시고 자세히 가르치심을 바라나이다.”

노옹 왈 “숙향의 거처를 잠깐 알거니와 배고프니 말하기 싫도다.”

전이 행중에 있는 음식을 가져와 먹인대 종시 부족히 여기거늘, 전이 하리를 명하여 주점에 가 주안을 많이 갖추어 오라 하니

노옹이 얼굴빛을 바꾸고 왈 “하리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어른을 대접코자 하니, 그 하리의 자식을 묻고져 하느냐?”

전이 이 말을 듣고 친히 주점에 나아가 삶은 돼지 하나와 좋은 술 백 잔을 가져다가 끓여 드리거늘

옹이 사양하지 않고 다 먹은 후, 전이 다시 물으니 옹 왈 “취하여 이르지 못하겠으니 진정을 알고저 하거든 하리 등을 보내고 너만 떨어져 내가 술 깨기를 기다리라.”

전이 이에 하리를 보내고 홀로 앉았는데, 문득 급한 비가 와 평지의 물이 전의 허리를 잠기었으나 마침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비는 그치고 바람과 눈이 급하게 몰아쳐 옹이 앉은 곳이 문혔으나 또한 움직이지 않고 섰는지라.

몸이 다 얼어 죽게 되었더니 노옹이 그제서야 잠을 깨어 가로되 “마음의 뜻이 어떠한가 알아보려 함이러니 과연 정성이 지극하도다.” 하고 소매에서 붉은 부채를 꺼내어 전을 향하여 부치니 그 눈이 잠깐 사이에 다 녹는지라.

노옹이 이르되 “숙향의 거처를 이르러니와 능히 찾을소냐?”

전 왈 “이르시면 진심으로 찾아 보리이다.”

노옹 왈 “그 때 반야산에 두고 가매 도적이 엮어가 촌가 근처에 두었더니 푸른 새가 와서 데려다가 명사지계 후토부인에게 두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라.” 하니

전이 깜짝 놀라 왈 “분명히 죽었음으로소이다.”

노옹 왈 “후토부인이 백록에게 시켜 남군 장승상 집 동산에 둔즉 그 집에서 기르더니 그 집 종 사향이 숙향을 모해하여 내치니 숙향이 갈 길을 몰라 표진 용왕궁으로 갔다 하니 그리로 가서 찾으라.” 한대

전이 놀라 가로되 “그런즉 반드시 죽었음이니 어찌 찾으리요?”

노옹 왈, “또 들으니 채련하는 아이들이 구하여 육지에 내어놓은즉 길을 잘못 들어 노전에서 불에 타 죽었다 하니 거기 가서 백골이나 찾아보라.” 하니

전이 왈 “화중 꺾것이 되었으면 혼백인들 어디 가 보리요?” 한대

노옹 왈 “화덕진군이 구하였으나 의복을 태우고 앞을 가리지 못하여 노변 수풀에 숨었더니 마고할미가 데려다가 인간에 두었다 하니 거기 가 찾으라.” 하거늘

전이 왈 “하늘 아래가 다 인간이라. 어디 가 찾으리요? 지명을 가르쳐주소서.”

노옹이 왈 “그대의 자식을 어찌 이 늙은이에게 여러 말을 하는고?”

전이 슬피 울며 무수히 애걸하니 그제야 노옹이 웃으며 가로

되 “저리 바쁘면 어찌하여 낙양의 옥중에서 죽이려 하였느냐?”

전이 왈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노옹이 왈 “이는 다 그대의 죄가 아니요 하늘이 정하신 수라. 나는 과연 이 물 맑은 용왕이러니 저번에 그대가 반하수에서 거북이를 구하였기로 나도 자식을 위하여 상제께 고하고 그대가 속향을 만날 길을 가르치나니 쉽게 만나려니와, 다만 속향이 굶기던[고생하던] 일을 알아 두어 속향을 만나거든 물어보라. 내 말과 같거든 속향인 줄 알라.” 하거늘

전이 대희하여 백배사례하여 왈 “감히 묻잡나니 이제 자사의 부인이 되었나니이까?”

노옹 왈 “자연히 알게되리라.” 하고 일어서는데,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전이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용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속향 만나기를 주야로 축수하더라.

이 때에 정렬이 양양으로 가고자 하되 사세 난처하여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날 밤 꿈에 할미가 이르되 “이번에 부모를 못 찾으면 십년 후에야 만날 것이니 부디 이 때를 잃지 말라” 하거늘

부인이 꿈을 깨어 재촉하여 위의를 갖추고 양양으로 갈새 지나는 고을마다 시녀에게 명하여 만류하여 보내더라.

이 때에 김전이 그 부인에게 이르되, “자사의 내행[부인의 행차]이 오래지 아니하여 남군 소로로 온다 하니 용왕의 말 같을진댄 정녕 속향이 우리를 찾아오는가 하노라.”

부인 왈 “몽사가 길하니 그 근본을 탐지하여 보사이다.” 하

더니

정렬이 관사에 하처하고 시녀로 하여금 거둬 부인에게 말씀을
넣어 뵈음을 청하니, 장씨 즉시 하처에 나아가니라.

정렬이 일어나 맞아 예의를 갖춘 후에 좌정하매

장씨가 물어 왈 “부인의 방년 몇이요?”

정렬이 대답하여 왈 “십팔이로소이다.”

장씨 속향을 생각하여 슬픈 회포를 진정하지 못하거늘, 정
렬이 왈 “무슨 연고로 슬퍼하시느뇨?”

장씨가 탄식하여 왈 “첩이 늦게야 한 딸을 낳아 극히 애중하
다가 오세에 난중에 잃어 지금 생사를 몰라 슬퍼하는지라. 마
침 부인의 연광이 자식과 동갑이니 문득 생각이 동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함이로소이다.”

정렬이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길게 탄식하여 왈 “첩
도 오세에 부모를 잃고 항상 서러워하더니 첩의 부모도 이같이
생각하올지라.” 하고 눈물이 어우러지거늘

장씨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여 물어 왈 “부모를 어찌하여
잃었으며 뉘 집에서 성장하였느뇨? 우리 둘이 다 슬픈 회포가
있고 이리 만남이 희귀하온지라 서로 사정 이야기 함을 혐의치
마소서.”

정렬이 대답하여 왈 “난중에 부모를 잃었으므로 자세히 기
역지 못하오나 사슴이 엮어다가 남군 장승상 집 동산에 두오니
그 집에서 길러내여이다.”

장씨 이 말을 듣고 반가우나 오히려 여러 곳에서 굶기던[고
생하던] 말을 하지 않으므로 감히 발설치 못하고 자리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첩이 부인과 회포가 같은지라. 한 잔 술로써 마음을 진정코저 하나이다.”

정렬이 칭사하고 일어나 잔을 받을새 손에 한 짝 옥지환을 꺾거늘, 장씨가 의심하여 물어 왈 “부인이 어찌 옥지환 외 짝을 꺾느뇨?”

정렬이 대 왈 “부모가 첩과 이별할 때 제 속고름에 채운 것이므로 부모를 보온듯이 주야로 벗는 일이 없나이다.”

장씨 분명고 속향인 줄 아나, 오히려 주저하여 시녀에게 명하여 옥지환을 내어오라 하고서, 반하수에서 진주를 얻어 옥지환을 만든 연유와 피란할 때 속향에게 채우고 가던 수말[앞뒤 사정]과, 태수가 용왕을 만나 문답하던 이야기를 일일이 일러 가로되 “오늘날 부인을 만나 지환을 보니 더욱 심신을 진정치 못하리로다.” 하고 옥지환과 용왕의 말 기록한 것을 내어놓으니,

정렬이 한번 보매 정신이 아득하여 자기 금낭을 내어드리며 실성체읍[정신없이 눈물을 흘림] 왈 “태태야[나이든 여자를 대접하는 호칭, 여기서는 ‘어머니’ 정도]! 소녀 과연 속향이로 소이다.” 하며 옆드러지거늘

장씨가 이 거동을 보고 또한 혼절기식하니 시녀들이 황망히 구하는 한편 태수에게 통하니

태수가 전지도지하며[옆드러지고 굽드러지고 하며] 나와 서로 붙들고 실성통곡하다가 정신을 차려 천행으로 만남을 가리키며 전후 고생하던 일을 말하여 서로 일희일비하더라.

자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자사가 듣고 대희하여 양양으로

가서 김전 양위를 뵈옵고 근읍 수령들을 청하여 큰잔치를 배설하여 삼일을 즐기니 이 소식이 원근에 진동하는지라.

이 때 간의태부 양희가 수유[말미를 얻어]하고 고향에 왔다가 이 기별을 듣고 괴이히 여겨 경성에 올라가 황제께 주달하니 황제 들으시고 위공을 불러 전후사연을 물으시고 좌우를 돌아보사 왈 “이선이 자사가 된 후로 도적이 감화하고 인사가 풍등[아주 잘 됨]하니 승상 기특하다” 하시고

즉시 예부상서로 승품시키고 김전으로 하여금 형주자사를 맡기시니, 상서가 명에 응하여 황성으로 가게 되매, 김전 부부가 여아의 떠남을 새로이 슬퍼하더라.

상서가 상경하여 궐내에 들어가 복지[땅에 엎드려] 주 왈 “신의 직품이 아비와 같사오니 체례[공무원의 예절]에 불가하온지라, 신의 관직을 거두심을 바라나이다.”

상이 옳게 여기사 “나라에 위공의 공로가 많으므로 위왕으로 봉하고 경을 초공으로 봉하여 경의 마음을 편하게 하노라.” 하시니

선의 부자가 황공하여 재삼 사양하되 상이 종내 윤택하지 않으시니 위왕 부자가 부득이 사은하니라.

그 후 선이 주하여 왈 “전 승상 장송이 남에게 권을 사양하고 고향에 침폐하였사오니 신원하옵도록 하옵고, 형주 자사 김전의 재목이 외임에 두기 아깝사오니 복원[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살피소서.”

상이 마땅하다 윤택하시고 장송으로 하여금 우승상을 맡기

시고 김전으로 하여금 병부상서를 제수하사 명초[임금이 부름] 하시니 장승상과 김상서가 조서를 받자와 경성으로 올라와 사 은하니라.

상이 가까이 부르사 왈 “경 등의 충성을 잊었다가 초공이 주한 말로 인하여 각별히 탁용하나니 경 등은 지실[잘 알다] 하라.”

양인이 사은퇴조하여 초부에 이르러, 김상서가 장승상과 서로 대하여 여아 양육한 은혜를 사례하고 장승상은 사향에게 속은 일을 후회하고 위왕은 숙향을 죽이려 하던 일을 사죄하여 이왕사를 서로 설파하며 주찬을 내어와 즐기더라.

하루는 초공이 큰잔치를 열고 조정을 다 청하여 환락할새, 객들이 취하므로 흥에 겨워 초공에게 이르되 “공의 문장은 이미 아는 바려니와 필연 음률도 알지니 아름다운 거문고로 우리 취흥을 돋움이 어떠하뇨?”

초공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는데 위왕이 혼연히 초공을 돌아 보아 이르되 “네 비록 음률이 소여[크게 내세울 것 없음]하나 제공이 너를 사랑하므로 가성[노랫소리]을 청하니 모름지기 사양치 말라.” 하니

초공이 마지못하여 물러나와 노수 세 곡을 부르니 그 소리가 형산백옥을 깨치는 듯, 구소에 봉황이 오는 듯[구소는 순임금 때의 음악. 이 음악을 연주하면 봉황이 날아들었다 한다.]한 지라. 자리의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또 단금[피리]를 가져와 일곡을 희롱하니 동정월하에 야학이 춤을 추고 소상추풍에 목엽이 분분한 듯하니 제객이 듣기를 마치고서

다만 위왕의 복록을 하례할 뿐일러라.

23. 양왕지녀 매향의 이야기

화설, 양왕은 황제의 아우라.

다만 한 딸이 있으되 인물과 재주가 빼어나고 시서에 무불 통지하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중군자라 하더라.

전에 소저를 잉태할 때에 양왕이 일몽을 얻으니 한 노인이 이르되 “봉래산 설중매가 그대의 집에 떨어지니 오얏나무에 접하여야 가지가 무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로부터 태기 있어 십삭만에 딸을 낳으니 이로 인하여 이름은 매향이라 하고 자는 봉래선이라 하니라.

점점 자라매 용모와 자질이 더욱 비상하니 왕이 보옥같이 사랑하여 택서하기를 심상히[평범하게] 아니 하더니 우연히 이선을 보매 대현군자라, 즉시 통혼하여 위왕의 허락을 받았더라. 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듣고 대로하여 다른 데 구혼하니,

소저가 들고 가로되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라 하니 대인이 이미 이랑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른 데 혼인을 의논하시니 소녀 죽어 불효할지언정 타문[다른 가문]을 쫓지 못하올소이다.”

양왕이 말을 듣고 이르되 “내가 아들이 없기로 어진 사위나 얻어 후사를 의탁코져 하더니 네 마음이 이같으니 도시 이 놓이 박복함이로다.”

소서 재배 왈 “부모 가르침과 명하심을 물과 불이라도 피하지 않으려니와 기어이 이 일 하라하심은 순종치 못하리로소이다.”

왕이 그 뜻이 굳음을 보고 울적해하더니, 이선의 벼슬이 높음을 보고 부인 최씨에게 이르되 “이랑이 이미 취처한지라 여아로 그 부실로 삼고저 하니 어떠하뇨?”

최씨가 대답하여 왈 “구차하오나 저에게 물어보사이다.” 하고 소저를 불러 물은대,

소서가 왈 “다른 가문은 생각지 못하오나 초공의 차비[둘째 부인] 됄을 어찌 구애하리이까?”

왕 왈 “네 뜻이 이러하니 다시 의논해보리라.” 하고

다음 날 조회에 들어가 어전에서 광명정대하게 위왕에게 물어 왈 “혼인을 허하고서 추후 약속을 위반함은 무슨 일이뇨?”

위왕 왈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당초에 학생이 상경한 사이에 장매[누나]가 주혼하여 타문에 혼인하였음을 진실로 몰랐건마는, 제 집 일이므로 변명한들 소용이 없음이여이다.”

상이 들으시고 양왕에게 이르시되 “이선의 일은 짐이 익히 아는 바이니 다투지 말고 타처에 구혼하여 지낼지어다.”

양왕이 고개를 조아리고 주하여 왈 “성교 마땅하오나 신의 딸이 이미 타문을 섬길 뜻이 없사온즉 제 부모라도 제어할 길 없사오니 난처하와이다.”

상이 칭선하여 왈 “경의 딸의 절개 여차하니 가히 아름다운지라. 이제 이선이 두 부인을 갖출 터이니 경 등은 의향이 어떠하뇨?”

양왕은 성교를 감축하되, 위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주하여

왈 “양왕의 딸은 금지옥엽이라, 선의 부실이 되어 몸을 굽힘이 불가할까 하나이다.”

상 왈 “짐이 선을 불러 결단하리라.” 하시고 초공을 명초[부르심]하시니 초공이 이미 짐작하고 칭병하여 나아가지 않고자 하거늘

정렬이 그 연유를 물은대 초공 왈 “어전에서 양왕의 딸 혼인을 정하려 하심이니 들어가지 않고자 하노라.”

부인이 정색 왈 “임금의 부르심을 어김이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닌가 하나이다.”

초공 왈 “기망함은 불가하나 어전에서 혼인을 말씀하시면 거역지 못할지라.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행실이 부족하면 부인에게 괴로울 뿐이요 하물며 국척[임금의 친척]이라 폐가 됨이 많을지니 아예 거절함만 같지 못하니라.” 하고 종시 들어가지 않으니

상은 진실로 병이 있는 줄로 알고 양왕에게 이르시되 “선의 병이 낫거든 정혼하리니 너는 염려말라” 하시니 양왕이 선의 병칭탁함을 짐작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

24. 이선의 황태후의 약을 얻으러 출행한다

이 때에 황태후께서 병이 드셨는데 증세가 괴상하여 귀먹고 눈어둑고 말못하는지라.

나라가 온통 진동하더니 한 도사가 와서 천자를 뵈고 여쭙오
되, “이 병환은 침이나 약으로 못 고칠 것이니 봉래산 개언초와
천태산 별이용과 동해용왕의 계안주를 얻어야 이 병환이 나으
실 것이니 어진 신하를 보내어 정성으로 구하소서.” 한대.[약
이름들은 각각 말을 하게 하는 것, 귀를 밝게 하는 것, 눈을
여는 것이라는 뜻이다.]

상이 즉시 조신을 모으사 의논하실새 양왕이 주하되 “조신
중에 이선이 가히 보냄직하오니 정녕 약을 얻어올까 하나이
다.”

상이 초공을 부르사 가로되 “짐이 경의 충성을 아나니 이
약을 얻어올쏘냐?”

초공이 대답하여 왈 “신하가 되어 어찌 폐하의 이르심을 사
양하리이꼬마는 다만 세 곳이 다 인간이 아니오니 돌아온다는
약속은 정하지 못하올소이다.” 하고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부모와 승상과 상서 모두 이별하는데 다시 못
볼까 서로 슬퍼하니라.

정렬과 상별할새 초공이 왈 “나의 길이 생사를 모를지라.
부인은 나를 위하여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부디保重하소서.
나의 생사는 북창 밖의 동백을 보아 짐작하되 나무가 쇠하면
병든 줄 알고 가지가 무성하면 무사히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
소서.” 하니

부인이 또한 옥지환 한 짝을 주며 왈, “이 진주 빛이 누래지면
첩이 병든 줄 알고 검거든 죽은 줄로 아소서” 하고 한 봉 글을
주며 천태산 마고선녀에게 전하라 하였더라.

25. 용왕의 아들에게 길인도를 받아 여러 나라를 거치다

초공이 부모께 하직하고 발행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승선한 지 일망[보름]에 대해중에 들어 큰 바람이 일어나고 배가 물속에 출몰하여 배에 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차에 문득 한 짐승이 물속으로부터 내닫는데 그 크기가 산갈고 뒤옹박같은 눈이 셋인데 불빛 같은지라. 소리 질러 왈 “너희는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땅에 지세도 안 주고 당돌히 지나가고저 하는가?”

초공이 왈 “나는 중국 사신이라니 황태후의 병이 중하시매 황명을 받자와 봉래산에 선약을 얻으러 가니 잠깐 길을 빌려라 [빌려달라].”

그 짐승이 왈 “잡말[쓸데없는 말] 말고 가진 보배를 주고 가라.” 하며 배를 잡고 힐난하거늘, 초공이 민망하여 빌어 왈 “가져가는 것이 양식밖에 없노라.”

그 짐승이 성내어 왈 “정녕 보배가 있음을 짐작하거늘 정 아니 주면 이 배를 엮치리라.” 하니 공이 어쩔수없이 옥지환을 내어주니 그 짐승이 보고 왈 “이것은 동해 용왕의 계안주이니 네가 어디에 가 도적질하였는가?” 하고 배를 끌고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그 짐승이 배를 머무르게 하고 왈 “용왕께 여쭙어 네 죄를 물은 후에 놓을 것이라” 하고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홍포선관이 나와 물어 왈 “네 아내는 뉘 딸이뇨?”

공이 왈 “내 부인은 김전의 딸 숙향이니다.”

그 선관이 들어가더니 용왕이 나오신다 하여 수중이 진동하며 왕이 나와 초공을 맞거늘, 공이 매우 송구하여 나아가 재배한다

왕이 붙들어 앞에 올려 좌정 후에 왕이 사죄 왈 “나는 이곳 용왕이러니 귀인이 지나심을 어이 뜻하였으리요? 저번 적에 내 누이를 반하수에서 김상서가 구하여 살아나매 은혜 값을 길이 없어 이 진주를 드렸는지라. 복 복자를 가졌으면 사람이 오래 살고 죽은 몸에 엮어두면 천만 년이라도 살이 썩지 아니하는 보배라. 수족 등이 다 아는 고로 오늘 순행하다가 멀리서 상서의 기운이 있다 하기로 찾아오라 하였더니 종의 전언을 들은즉 귀인이 가신다 하오매 반가운지라. 대저 봉래산에 가시면 약은 있으려니와 여기서 일만이천 리라. 십이국을 지나가고 약수가 가로놓인 데 있으니 인간 배로는 건너기 어려울까 하노라.” 하고 잔치를 베풀어 크게 대접하더니

한 소년이 밖에서 들어와 절하고 앉거늘

왕이 물어 왈 “네 어이 왔느냐?”

소년이 대 왈 “선생께서 ‘네 공부를 다 하였으니 태을선의 힘을 얻어야 선관이 쉽게 될 것이라, 이제 태을이 마침 황태후 병으로 약을 구하러 봉래산 가는 길에 정녕 네 집에 들 것이니 네 태을을 평안히 호송하라’ 하시기에 왔나이다.”

왕이 대희 왈 “저 손님이 태을이시니 인간의 옷을 바꾸어 신선의 옷으로 입고 나의 공문을 가져가면 의심이 없으리로다.”

초공 왈 “저 소년은 뉘시뇨?”

왕 왈 “내 아들로써 일광도인의 제자가 되었던니 스승의 명으로 상서를 뒤편히 왔나이다.”

초공이 대희하여 왈 “그러면 따라온 사람들은 어찌하리요?”
왕이 왈 “보내소서.”

하고 수신을 불러 분부하였다.

초공이 용왕께 하직하고 물 가로 나오니 용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붉은 표자를 타니 빠르기가 살갈터라.

용자가 초공에게 이르되 “상서가 지금은 진객[진세의 손님]이라 임의로 선간[신선의 경계] 출입을 못할 것이므로 부왕의 공문을 핑계삼아 갈지니 나의 하는 대로 하소서.” 하고 가더라.

한 곳에 다다르니 회회국이라. [이본에, 사람들이 바다로 다니지 않고 물으로 돌아다니더라가 있음.]

이곳을 맡은 성왕은 성정이라. 용자가 들어가 성왕께 공문을 드리니 성왕이 즉시 성접[공문을 인가하여 인가서를 내어줌]하여 주거늘 용자가 하직하고 가더라.

또 한 곳에 다다르니 호밀국[나라 이름이 유실되어 있으므로 한문본으로부터 취함. 이본에 이 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꿀만 먹음이더라가 있음. 호밀은 꿀을 좋아한다는 뜻.]이니 성왕은 필성이라. 용자가 공문을 드리니 성왕이 왈 “그대가 태을을 데리고 가거니와 이 앞길이 험하니 조심하라” 하고 성접하여 주거늘 가지고 가더라.

유구국[이본에는 유리국]에 이르르니 성왕은 지성이라. 공문을 드리니 성왕 왈 “이곳은 범인이 임의로 출입을 못하거늘

어찌 들어왔는가?” 하고 알은 척도 하지 않으니, 용자가 태을을 데리고 가서 연유를 고한대 성왕이 웃으며 왈 “그대 낫을 보아 성접하여 주노라” 하거늘, 가지고 가더라.

교지국에 이르니라. 성왕은 규성이니 길이 가장 험한지라. [이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오곡을 먹지 않고 차만 먹고 살며 모두 짐승같은 모습이라. 왕의 성질이 사나와서 타국 사람이 국경을 범하면 누구든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잡아죽이더라가 있음.]

공문을 드리니 성왕이 왈 “용자가 무슨 일로 왔는가?” 용자가 태을을 데리고 가는 연유를 이르니

성왕 왈 “봉래산은 영산이라. 태을인들 어찌 상제 명 없이 출입하리요? 용왕과 성왕들이 속인을 들여보내는 죄 있으리니 상제계 품하여 처치하리라.” 하고 용자와 이선을 구리성에 가두니

용자가 상서에게 이르되 “이 성왕이 가장 험하니 밤에 내가 도망하여 우리 스승을 청하여야 이 옥을 면하리라.” 하고 가만히 도망하여 일광노에게 이 연유를 고한대

광노가 왈 “내가 아니면 구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름을 타고 교지국에 와 규성을 보고 물은대, 규성이 웃으며 왈 “내 저를 수일 곤욕을 보이교저 함이니이다.”

광노가 왈 “황태후 병으로 약을 얻으러 가나니 빨리 보낼지어다.”

규성이 웃고 용자와 태을을 놓아보낼새 공문을 성접하여 주거늘, 용자가 사례하고 배를 띄워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우희국이라. 크기가 열 자씩이나 되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지라.

용자가 왈 “이 땅 사람이 상서를 침노하리니 이 부적을 던지소서.” 하고 성왕께 들어가니 이 곳 성왕은 진성이라, 즉시 성접하여 주더라.

26. 신선들의 인도를 받아 봉래산에 도착하여 약을 구하다

초공이 용자를 보내고 홀로 앉았더니 그 땅 사람이 초공을 보고 잡아먹으려 하거늘, 초공이 두려워 배를 띄우니 그 놈들이 물을 생각지 않고 들어오는지라.

초공이 급히 부적을 던지니 문득 대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뒤누으니 물속으로 들고 나지 못하더라.

그 배가 바람에 부쳐져 정처없이 가더니 물 속으로부터 한 선관이 나와 보고 물어 왈 “신선도 아니요 용왕도 아니로되 표주는 어찌 타고 어디로 가는가?”

초공이 절하여 왈 “봉래산에 약 얻으러 가노라.”

선관이 웃어 왈 “진황 한무라도 못 얻은 것을 그대가 어찌 얻으리요? 헛수고말고 나를 따라 선경도 구경하며 술집이나 찾아다니면 좋으리로다.” 하고 온갖 조롱을 하거늘

초공이 민망해 하더니 뒤에 한 선관이 파초잎을 타고 표연히

오며 소리치되, “적선아 어디로 향하느냐?”

적선이 왈 “이 손님이 나에게 술집을 가르쳐달라 하기로 끌려가노라.”

선관 왈 “저 손님이 비록 진객[세상손님]이나 함께 주가를 찾으니 귀한 말이로다. 그대는 돈이나 많이 가져왔는가?”

초공 왈 “가져온 돈 한 푼도 없나이다.”

적선 왈 “네 옥지환을 팔면 술값을 당하리라” 하고 배를 끌며 가더니

한 선관이 칠현금을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서서 옥저를 불고 오다가 초공을 보고 왈 “반갑다, 태을아. 인간의 재미가 어떠하뇨?”

초공 왈 “속객이 선관님들을 모르거니와, 남의 급한 길을 멈추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니 민망하여이다.”

적선이 소 왈 “이 손님이 제 아내가 주던 옥지환을 팔아 나에게 술을 먹여주마 하며 종일 조롱하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동빈이 웃으며 왈 “서로 붙잡혔다고 하니 수지오지[누가 잘 못하고 나쁜지] 자웅이리요[견주어 차이가 없음]?” 하고 서로 노닐더니

또 한 선관이 일엽주를 바삐 저어오며 초공을 향하여 왈 “태을아, 우리를 모르는가?” 하고 술을 서로 권하더니

문득 청의동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고하여 왈 “안선생이 직녀궁으로 청하시더이다. 태을을 어찌하고 가리요?”

두목지 왈 “내 봉래산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내가 데려다주

고 가리니, 그대 등은 먼저 가소서.” 하고 제선과 작별한 후에
초공을 데리고 가더니, 앞에 한 산이 있으되 하늘에 닿았고
채운이 영롱한지라.

두목지 왈 “저 산이 봉래산이니 구류선을 찾아 약을 구하라.”
하고 가거늘

초공이 산 아래 이르러 보니 용자가 벌써 와 기다리는지라.
초공을 보고 왈 “초공이 간 곳을 찾지 못하더니 적선을 만난즉
두목지 선생이 데리고 봉래산으로 갔다 하기에 미리 와서 기다
리나이다.”

초공이 기꺼워하며 제선의 보채던 말을 전하니, 용자가 왈
“그 선관들이 아니었던들 반도 못 왔으리이다.” 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니 그 곳에 한 바위가 하늘에 닿았거늘, 초공
이 왈 “이 바위는 나는 새라도 오르기 어려우니 어찌하리요?”

용자 왈 “그것은 근심하지 말고 내 등에 올라와 눈을 감으라”
하거늘, 초공이 용자의 등에 오르니 용자가 황룡이 되어 몸을
솟구쳐 오르는지라.

용자 왈 “내려올 때는 자연 쉬우리니, 다만 구류선을 찾아
약을 구하라.”

초공이 홀로 올라가니 길이 다 옥같은 바위요 기화이초와
청란백학[靑鸞白鶴]이 난만하고 낭자하더라.

침향나무 아래 두 선관이 바둑을 두거늘 나아가 절하되 본척
도 하지 않더니, 문득 청의동자가 차를 드리며 왈 “어떤 손님
이 왔나이다.” 선관이 비로소 바둑을 그치고 왈 “어떤 사람이
선경을 더럽히더뇨?”

초공이 대답하여 왈 “소생은 중국 사신 이선이러니, 황태후 병이 중하시매 황명으로 개언초를 얻으려 하와 구류선을 찾나이다.”

선관 왈 “저 산위에 올라가면 보려니와, 그대의 범태육골로 어찌 용이하게 오르리요?”

초공이 우러러보니 과연 날개가 있어도 못 오를지라. 정히 민망하더니, 청의선관 왈 “구류선을 어찌 찾으리요? 우리와 바둑이나 두고 산천이나 구경하자.” 하며 무수히 조롱만 하더니,

문득 한 선관이 오며 초공의 손을 잡고 왈 “태을아, 반갑다. 인간의 즐거움이 어떠하며, 설중매를 보았느냐?”

대답하여 왈 “설중매를 모르나이다.”

선관이 웃으며 왈 “천상 일을 다 잊었도다.” 하고

동자에게 차를 권하라 하거늘, 공이 받아마시니 그제서야 봉래산에서 놀다가 능허선의 딸 설중매와 부부가 되었던 일을 생각하고 왈 “설중매는 어디 갔느냐?”

선관 왈 “능허선 부부는 인간 김전 부부요, 설중매는 양왕의 딸이 되었으며, 그대의 부실이 되리라.”

공이 또 물어 왈 “능허선 부부는 무슨 일로 인간에 내려가며 소아는 어찌하여 김전의 딸이 되고 설중매는 어찌하여 양왕의 딸이 되었는고?”

선관 왈 “능허선은 상제께 굴 진상을 늦게한 죄로 귀양하되, 전생에 설중매 때문에 소아를 원망하던 원수를 보응하느라고 소아와 부녀가 되어 간장을 썩이게 하고, 설중매는 부모와 그대를 보려고 자원하여 먼저 죽으므로 귀히 되어 양왕의 딸이

되었느니라.”

초공을 재촉하여 빨리 돌아가라 하며 세 가지 약을 주며 왈 “소용[작은 병]의 물은 환혼수니 입에 넣으면 혼백이 돌아오고, 그대 가진 옥지환은 신체 위에 두면 썩은 살이 다시 살아나고, 금낭에 든 것은 개연초니 먹으면 말을 하리라.” 하고

또 금낭 하나를 주며 왈 “이 약은 우회단이니 그대 잘 간수 하였다가 나이 칠십이 되거든 칠월 십오일 오시에 소아와 함께 환식을 먹으라.” 하고

차를 주거늘 공이 받아마시니 인간의 일이 황연해지더라.

신관에게 하직하고 나오니 용자 왈 “가는 길은 오던 길과 다르니 배에 올라 가만히 눈을 감으소서” 하거늘

공이 배에 오르니 벌써 용궁에 왔는지라.

27. 천태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다

왕이 초공에게 잔치를 열어 후히 대접하였다.

그 후 용자를 불러 배를 준비하여 초공과 용자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할새, 한 곳에 이르러 용자가 왈 “이 산이 천태산이라” 하고 “선생께 다녀오마” 하고 가거늘,

공이 홀로 산중으로 들어가니, 앞에 냇물이 있어 깊어서 건너지 못하더라. 문득 한 동자가 사슴을 타고 나는듯이 가거늘, 공이 그 동자가 가는 곳으로 가니, 소나무 아래 한 종이 육환장을 짚고 나오더라.

공이 절하고 마고선녀의 집을 물은대, 종이 답하여 왈 “물을 건너 남쪽으로 가면 옥포동이 있으니 거기 가 찾아보라.”

공이 왈 “물이 깊어 건너기 어려워하나이다.”

그 종이 짚었던 막대를 던지니 변하여 다리가 되거늘 공이 건너가더라.

그 종이 공중으로 오르며 왈 “나는 대성사 부처로서 그대의 길을 가르치고 가노라.” 하니

공이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남쪽으로 가니라.

한 선녀가 학을 타고 오는지라. 공이 나아가 옥포동을 물은대, 선녀 답례하여 왈 “낭군은 뉘시며 옥포동은 찾아 무엇하려나?”

초공이 왈 “마고선녀를 보려 하노라.”

선녀가 왈 “낭군이 길을 잘못 들었도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다른 인가가 없으니 내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천태산을 찾으소서.” 하고 공을 데리고 들어가니,

공이 둘러본즉 궁궐같은 집이 극히 화려한데 남자는 없느니라. 마음에 불안하여 하거늘

선녀가 왈 “늬어 허물없으니 사양치말고 오르소서.”

공이 마지못하여 올라앉을새, 동서에 황금 교의를 놓고 동편 교의에 앉기를 청하거늘, 공이 굳이 사양한대 선녀가 노하여 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도 길을 아니 가르치리라.” 하니

공이 어쩔수없이 교의에 올라앉으니 선녀가 주찬을 드리거늘, 공이 자세히 보니 전날 마고할미가 주던 음식이라. 공이 의혹하여 가로되 “이 산이 천태산이라 하거늘 그대는 아니라

하니 무슨 일이뇨?”

할미 왈 “낭군이 거짓말을 듣고 위태로운 길에 와 계시도다. 가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공이 듣기를 청한대 할미 왈 “공명이 비록 영화로우나 위태한 땅이니 나아가지 마소서.”

공이 왈 “그 말이 마땅하나 이미 군명을 받자와 약을 얻으러 왔으므로 몸이 다하도록 행하여 보려 하노라.”

할미 왈 “속담에 ‘죽은 정승 산 강아지’라 하니 무슨 일로 남을 위하여 고행을 하다가 비명에 죽으리요? 내게 노비 수천 구와 전답 수천 결이 있으니 족히 평생을 보낼 수 있음이라. 내 딸이 장성하였으나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더니 그대를 만나 다행이로다.” 하고 시녀에게 명하여 즉시 소저에게 인도하여, 밤을 보내었다.

이윽고 날이 밝으매 살펴본즉 아무것도 없고 한 냇가에 누웠는지라. 꿈도 아니요 정신이 황홀하여 고국을 생각하고 글을 지어 읊으며 한 고개를 넘어갔다.

한 노파가 헐벗고 추한 모양으로 광주리를 옆에 끼고 나물을 캐거늘

나아가 절하고 천태산 가는 길을 물으니 할미 왈 “이미 오던 길이라.” 하거늘, 또 옥포동을 물으니 답 왈 “이곳이라” 하니,

또 물어 왈 “마고선녀는 어디 있나뇨?”

할미 이윽히 보다가 가로되 “내가 마고할미로소이다.”

공이 반겨 두 번 절하고 왈 “나는 낙양 북촌 이선이러니, 어찌 나를 몰라보나뇨?”

할미 또한 반겨 왈 “서로 떠난 지 오래라 생각지 못함이로소이다. 숙낭자도 무양[탈이 없음]하시니이까?”

공이 부인의 글을 전하니 할미 그제야 웃으며 글을 보고 왈 “우리 사이야 만년초라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어제 과연 진맥하고 오늘 이 버섯을 얻으러 왔거늘, 어제 숙낭자를 만나 들으니 황태후가 봉하셨다 하더이다. 급히 돌아가소서.” 하고

자그마한 버섯 하나를 주거늘 공이 받고 사례하려 하나 문득 간 데 없더라.

길을 찾아 물가로 나오니 용자가 표주를 타고 왔는지라. 서로 반기며 용자가 이르되 “서해 용궁에 간즉 내 고모가 이르시되 ‘내게 계안주가 있었으나 김상서의 은혜를 갚느라고 드렸으니 본부에 가서 찾으소서’ 하더이다.” 하고

배에 올라 눈을 감으라 하거늘 공이 배에 올라 눈을 감으니 다만 귀에 바람소리만 들리는지라.

잠시 후에 벌써 황안성 영희관 물가에 왔거늘, 공이 대희하여 용자에게 사례하고 이별하였다.

28. 황태후를 살리고 초왕에 봉하여지다

경성에 들어가니 태후가 붕[崩]하신 지 십일이라.

천자를 뵈오니 천자 가라사대 “경의 길이 무사히 돌아옴은 기쁘나 황태후 이미 봉하시니 생전에 돌아와 아무 약도 시험치 못하고 별세한 일이 더욱 통박하도다.” 하고 애통함을 마지

아니하시니

초공이 땅에 엎드려 주하여 왈 “신이 이 길에서 신통한 약을 조금 얻어왔사오니, 비록 사후라도 시험하여 보사이다.” 하고 바로 빈소로 가서

우선 옥지환을 신체 위에 얹으니 살빛이 산 사람 같아지고, 입에 환훈수를 넣으니 가슴에 온기가 있어 동정이 현현하고, 개언초를 넣으니 말을 하고,

귀에 별이용을 넣으니 성음을 쾌히 듣고,

눈을 계안주로 씻으니 만물을 다 보는지라.

태후가 말하여 가라사대, “내 그 사이 잠이 들었던가? 꿈을 꾸었던가? 병들었던 일이 생각나니 이것이 어인 일인고?” 하시니,

황제가 환희희행[즐겁고 흡족하고 기쁘고 다행하다]하여, 진가를 분변치 못하고 공의 손을 잡고 위로하사 왈 “경의 충성은 천만고에 드문지라. 이 망극한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천하를 나누고저 하시니,

상서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왈 “폐하는 태후를 위하시고 신은 폐하를 위하옵이 천지간의 마땅한 도리요, 하물며 폐하의 성효[거룩한 효성]를 하늘이 감동하심이라. 이제 폐하께서 신에게 도리어 역적의 이름을 얻게 하려 하시니 황공무지하와, 조정의 제신들과 함께 얼굴을 들고 섰기 어렵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는 신의 부자의 벼슬을 갈아주심을 바라나이다.”

상이 그 뜻을 어기지 못함을 짐작하시고 이에 이선을 초왕으로 봉하시고 김전을 좌승상으로 삼으시니, 초왕이 사은하였다.

집에 돌아와 부모를 뵈오니 부모와 정령이 맞아 반기며 다시 만남을 천행으로 알고, 더욱이 약을 얻어 나라에 충성함을 천행으로 기꺼워하더라.

29. 이선이 양왕의 딸로 둘째부인을 삼고 속향이 반야산 도적에게 은혜갚는 이야기

이 날 밤에 초왕 부부가 서로 대하여, 부인이 왈 “왕이 가신 후에 동백이 무성하매 무사히 갔다가 오실 줄을 알았으나, 자연 염려가 무궁하더니, 하루는 꿈에 마고할미를 따라 한 산 중에 들어가니 거기에 큰 궁전이 있더라. 거기서 왕을 만나 여차여차 이르고 안으로 들어가니 할미 이르되, ‘상서가 저리 거절하여도 양왕의 딸로 둘째부인 삼기를 면할 수 없으리라’ 하더라.”

왕도 또한 대답하여 구류선의 말을 이르니 부인이 더욱 혼사를 권하는지라.

하루는 양왕이 위왕을 보고 혼사를 말하거늘, 위왕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 이르고, 돌아와 초왕에게 양왕의 말을 전하고 양왕에게 허혼한다는 말을 통하였다.

택일하여 성례할새, 두 집이 의기 화합하여 대사를 순조로이 이루니, 위의와 범절은 말할것도 없고 결혼의 의미가 태평한 때여서 배나 더하더라.

천자가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 속향을 정렬왕비로 봉하시
고 매향을 정숙왕비로 봉하시다.

이후로 세 분 부부가 화락동거하여,

정렬은 이자일녀를 두고 정숙은 삼남일녀를 두어 한결같이
등과하여 거관이 되었는데, 정렬의 장자는 태자태부 겸 병부상
서가 되고 여아는 태자비가 되었다.

차자는 정서도독[征西都督]이 되었는데, 오월 주천 땅에서
오랑캐를 쳐 승전하여 적병을 잡아죽일 때였다. 그 중 한 사
람이 맨 것이 절로 끊어지거늘 제장이 활로 쏘려 한대, 화살이
땅에 떨어지고 맞지 아니하니, 괴이히 여겨 죽이지 아니하고
장하에 두었다.

하루는 초왕이 제장으로 더불어 모든 막하의 재주와 여력을
겨뤄 구경하는데, 그 장수가 오랑캐 십여인을 감당하여 이기기
가 어렵지 않더라.

이 때 정렬이 주렴 사이로 그 장수를 본즉 정녕 반야산에서
자기를 업어다가 촌가 근처에 두었던 도적이라. 놀라고 반가워
즉시 초왕을 청하여 그 사연을 이르고 물어봄을 청하니,

왕이 그 장수를 불러 문 왈 “네가 전에 반야산에서 어린 아
이를 구제한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장수가 이윽히 생각하다가 과연 모년간에 반야산에서 여
차여차 하였음을 낱낱이 고하거늘, 초왕이 기특히 여겨 부인에게
소이연을 전하니, 왕비 크게 반겨 불러 그 때 이야기를 이르고
금백[금과 비단]을 후히 주어 제 고향으로 보내나, 그 사람이

굳이 사례하고 가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왕이 천자에게 연유를 주달한대, 상이 또한 기특히 여기서 진서장군 서량태수로 삼아 서방 도적을 진정케 하시니라.

30. 신선으로 돌아가다

세월이 여류하여 세상사가 변한지라.

장승상 부부의 연세가 구십에 이르러 먼저 기세하시니 자녀가 없어서 정렬이 모시던 터이라. 조석제전을 지성으로 하여 십년 양육하던 부모지정을 정성으로 갚으니라.

위왕 부부 또한 흥[薨]하니, 초왕 부부 등이 애통망극하여 삼년 향화를 마치다.

그 후에 초왕 부부 또한 연수가 칠십이라. 수명의 한을 당하여 진세의 인연이 그쳤는지라.

칠월 보름에 자녀를 모아 큰 잔치를 배설하고 친척과 오랜 벗들로 더불어 만좌희락하여 평생 고락과 세상에 드물게 겪은 일과 지금 팔자가 여차함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슬하에 앉히고 세상 재미를 이야기하더니,

문득 한 선비가 밖에서 들어와 초왕을 향해 읍하고 앉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여동빈이라.

일어나 맞으니 동빈이 왈 “그대 부부를 상제께서 부르시니 가기를 청하노라.” 하니

왕 왈 “육신이 어찌 가리요?”

동빈 왈 “구류선이 주던 약을 생각지 못하느냐?”

왕이 비로소 깨달아 왕비와 더불어 한 환식을 먹으니 다시 말을 못하며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더라.

자녀 등이 발상거애하여 예로써 허장하였다.

정숙왕비는 김전 양위를 지성으로 섬기더니, 오년만에 정숙왕비가 김상서 부부를 모시고 경하수에서 잔치하며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데,

문득 한 노인이 학을 타고 내려와 불러 이르되 “능허선아, 인간 재미도 좋거니와 선간을 잊었느냐?” 하고 잔을 들어 상서 부부와 정숙왕비에게 권하여, 삼인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싹싹해지고 전생의 일이 황연해지거늘, 그 노인은 채약하던 구류선이라.

서로 반가워하더니, 이윽고 그 네 사람이 일시에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향하여 올라가니라. 자녀들이 창황망조하여 망극애 통하더라.

천자가 들으시고 사관에게 명하여 사적을 기록하라 하시고, 자손을 각별히 수용하라 하시니, 초왕의 기이한 사적이 별전에 있으므로 대강 기록하노라.

戊午 十月 治洞 新板

케.이.텍.문.고 005 속향전

초판 제2교 | 펴낸 날 2010년 4월

지은이 | 미상 (고전소설)

옮긴이 | Nova De Hi

펴낸이 | 케이텍문고 편집실

펴낸곳 | 케이텍

값 | 0,000원

잘못된 책도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